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문인들의 제주명승 인식과 변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송 민 경

2015년 8월

조선후기 문인들의 제주명승 인식과 변화

지도교수 김 동 전

송 민 경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송민경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8월

Recognition and Change of Scenic Spots in Jeju
by Writ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ng Min-Ky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5.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표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4
II. 명승유람과 팔경문화	6
1. 명승유람의 성행 배경	7
2. 팔경문화의 유입과 확산	17
III. 제주명승 인식의 내용	22
1. 한라산 유람자의 명승 인식	22
2. 지방관의 탐라순력과 명승 인식	26
3. 매계 이한우의 명승 인식과 영향	45
IV. 제주명승의 특징과 변화	52
1. 제주명승 인식의 특징	52
2. 제주명승의 시기별 변화	59
V. 결론	66
참고문헌	69

표 목차

<표 1> 소상팔경과 서호십경의 제목	18
<표 2> 한라산 유산기록	24
<표 3>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명승지	37
<표 4> 매계의 「영주십경시」와 내용	46
<표 5> 19세기 문인들의 「영주십경시」	49
<표 6>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명승지	62
<표 7> 제주 명승도의 시기별 변화	63

그림 목차

<그림 1> 『함흥내외십경도』의 「지락정」	56
<그림 2> 『탐라십경도』의 「명월소」	56
<그림 3> 관동팔경의 위치	59
<그림 4> 탐라십경의 위치	59

Abstract

Recognition and Change of Scenic Spots in Jeju by Writ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ate Joseon Dynasty was the period with a prevalent social trend of sightseeing the scenic spots. The purpose of sightseeing became various including enjoying the landscape, escaping from the secular world, developing writing skills and seeking for the tracks of the sages from the earlier generations. Sightseeing of the scenic spots became widespread due to the introduction of landscape essay and western painting technique from the Ming Dynasty, the traffic network developed by road maintenance, the increase in economic strength from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capital, resulting in the quantitative growth in the records of scenic spots.

Since Jeju was not easy to go sightseeing, people visited famous local sites and recorded the journey while performing official works or heading to the place of exile. In particular, the documents recorded the landscape in Jeju by local officials contributed to raising the status of Jeju,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writers based in other regions on Jeju Island.

The awareness of the famous mountain in Jeju, Hallasan Mountain changed from considering it as an object of faith to an object of research and self-discipline.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selecting top 10 sceneries(十景) changed to focus on the scenic view rather than including military strategic points to scenic spots.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focus of the scenic spot records changed from the practical information including the history and geographic information of geographic features to the poems written while

enjoying the landscape or feeling about the scenic views.

In particular, the records of the scenic spots in the 18th century were the records for effective governance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ulture enjoyed by the writers during the period where sightseeing was popular. On the other hand, the records of the scenic spots after the 19th century were expressed in a number of poetry, writings and paintings, tending to expand to the scenic and romantic elements and entertaining elements. Mostly the local officials realistically expressed the scenic spots to record the tour for the official purpose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After the 19th century, individual feelings through sightseeing were recorded. In other words, it was figured out that the people started to change their awareness of scenic spots, by regarding them as an object of play.

I.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표

名勝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어떠한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름답거나 흥미 있는 자연물이나 장소를 뜻하며 景勝, 勝景 등 유사한 의미의 여러 단어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명승은 단순히 뛰어난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문화적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¹⁾ 즉, 명승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 투영된 결과물이며 인식 주체가 살아온 시대적·개인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가치의 복합체인 것이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명승 인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 명승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명승을 유람하려는 풍조가 성행하였다. 山水가 신앙의 대상이었던 조선시대 이전과는 달리 修己의 장소, 遊戯의 장소로 인식되면서 산수를 유람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양해진 것이다. 건국초기부터 도로를 정비하여 발달한 교통망은 유람의 성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실학의 도입, 민간수공업의 전환, 상업자본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경제력이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유람이 보편화되었다.

명승 유람은 명나라의 山水遊記가 조선으로 유입되어 대중적인 독서물로 자리 잡고 明·淸의 서양화법이 전해져 조선의 풍광을 그리는 회화양식이 발달하게 되는 등 명의 영향을 받아 유행하게 되었다. 더불어 臥遊로라도 유람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각종 유람기의 창작이 유행했으며, 유람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혹은 화공을 데리고 다니며 남기고픈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성행하

1) 신동섭, 「조선 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 장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9~10쪽.

게 되었다.

유람의 유행과 함께 17세기 후반에는 특정 지역의 명승을 한 단위로 유형화한 八景圖, 十景圖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소상팔경도 이후에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제주의 경우 목사나 유배된 유학자들에 의해 경관에 이름을 붙이고 팔경이나 십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시문이나 회화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뛰어난 명승지로 알려졌으나 한양과의 거리가 멀고 뱃길로 가는 길이 험난하여 타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주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나 유배자들의 저술과 회화활동을 통해서만이 제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17세기 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이익태는 제주를 두 번 순력한 후 「耽羅十景」을 완성하였다. 이익태는 육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이 적은 것에 안타까워하며 유명한 절경과 숨겨진 경치를 찾아내 십경을 선택하고 병풍형식의 십경도를 제작하였다.

또 하나의 제주의 명승 기록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이형상의 『耽羅巡歷圖』는 순력의 기록화이다. 양난 이후 18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의 피폐 상황을 파악하고 戰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畫師軍官이 지방에 파견되었고, 이들이 제작한 각 지역의 지도와 순력의 기록은 대부분 그 지역의 명승지가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기록화는 통치와 행정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는 오늘날의 영상 기록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당시 사상과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현실화시키는 가치를 지녔다.

때문에 제주의 유산기, 순력의 기록, 그림, 한시 등 다양한 명승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관들이 제주 명승을 집경하고 제주 외의 지역에 알리려 한 이유, 많은 명승 중에서 선택된 명승에 대한 기준, 시대별로 명승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십경이라는 명승이 남아있는 이유 등에 대한 궁극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제주의 십경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원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주문화의 始原的 모습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제주 명승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진 것이 거의 없지만 미술사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있었고, 명승지의 집경 관련 연구는 관련 시문의 국문학적 연구²⁾, 십경의 경관 분석과 상품화와 관련한 조경학 분야의 연구³⁾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팔경·십경에 대한 연구들은 관동·관서 지역을 대상으로 유람문화의 발달을 탐구하고 있다.

우선 회화사적인 관점으로 「17세기 말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에서는 『탐라순력도』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는 『탐라십경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⁴⁾ 『탐라십경도』를 통해 『탐라순력도』의 실경산수도적인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며 다른 정형화된 팔경·십경도류와 비교함으로써 타 지역과는 다른 제주지방만의 회화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탐라십경도> 연구」에서는 흩어져 있는 『탐라십경도』의 작품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림의 구도와 산수적인 표현, 인물과 건축물의 표현 등을 분석하고 그것의 회화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⁵⁾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탐라순력도』의 경우 『탐라순력도연구논총』⁶⁾에서 분야별로 『탐라순력도』에 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그 이후의 연구가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
- 2)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 제11권, 영주어문학회, 2006; 손기범,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영주어문』 제17권, 영주어문학회, 2009.
 - 3) 노재현 외,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노재현 외,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 4)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제17권, 온지학회, 2007.
 - 5) 고길선, 「조선후기 <耽羅十景圖>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6) 『탐라순력도연구논총』에는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관지(신상범), 「『탐라순력도』의 식물과 식생(김문홍), 「『탐라순력도』의 자연환경(손인석), 「『탐라순력도』를 통해서 본 마을의 구성실태와 분포적 특성」(정광중),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김동진), 「『탐라순력도』로 읽은 제주도의 의례」(조성윤) 등 『탐라순력도』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있다(탐라순력도연구회,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제주의 명승 집경 관련 연구로는 국문학 분야의 연구가 알려져 있는데 김새미오는 문학사적 관점에서 근대의 십경과 이한우가 선택한 십경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여 십경도에 같이 쓰였던 한시를 분석함으로써 ‘영주십경’의 형상화를 추구하였다. 한학자 오문복은 『매계 선생 문집』을 비롯하여 영주십경의 관련시를 모아 『영주십경 시집』을 엮었고 이를 통해 선인들의 풍류상을 조명한 바 있다.

한편, 노재현 등의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은 근현대에 선택된 십경 각각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제주도에 전래되고 있는 제주의 경승관을 조경학적 시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에서 명승을 집경하게 된 역사·문화적인 배경,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주 명승의 특징, 명승 인식의 변화 등은 배제한 채, 한시나 그림의 기록물 자체에만 관심을 두거나 자연 문화경관의 경관적 가치에만 주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방법

우선 지금까지 검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쓰인 한라산 유산기와 『탐라십경도』·『탐라순력도』·『영주십경도』 등의 그림, 이익태의 『知瀛錄』·이형상의 『南宦博物』 등 문헌자료와 매계 이한우의 「영주십경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영주십경’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7세기 말의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 않으므로 십경을 선택하게 된 경위와 십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익태의 『지영록』을 중심으로 하여 후에 제작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기록화와 『남환박물』의 명승에 대한 기록 등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구성 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제주의 명승에 대한 내용을 시대 순으로 정리할 것이며 제주의 명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하여 과정을 추론

하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각 사료들을 분석할 때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명승이 어떠한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선택된 것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그 역사적 배경과 제작 상황, 작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연관하여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 및 그림과 문헌 사료를 참고하여 조선후기 제주의 명승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장 명승유람과 팔경문화에서는 조선후기에 명승유람이 성행하게 된 배경과 그 영향, 유람문화풍조와 더불어 팔경문화의 유입부터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 제주명승 인식의 내용에서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한라산 유산기와 17세기 이익태의 『지영록』과 「탐라십경」, 18세기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 19세기 이한우의 「영주십경시」 등을 중심으로 시대별 제주명승 기록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육지부의 유람문화 풍조의 유행과 팔경문화의 확산이 제주를 거쳐가거나 혹은 제주에 거주했었던 문인들의 명승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IV장 제주명승의 특징과 변화에서는 앞서 분석한 제주명승의 기록을 바탕으로 타 지역의 명승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명승 인식의 특징을 알아보고, 명승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대별 유람의 목적과 명승의 집경 및 선정과정, 명승을 인식하는 주체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의도, 명승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게 될 제주명승의 기록들은 주로 문인들의 유산기, 순력의 기록, 한시, 그림 등이다. 물론 명승을 기록하는 매개체는 산수유기, 유람시, 기행사경도 외에도 명승지에 직접 새겨진 刻字 또한 포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⁷⁾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한 기록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7) 백종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II. 명승유람과 팔경문화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명승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해 생성된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을 말하는데,⁸⁾ 객관적인 경관의 뛰어난 것보다는 경관이 좋은 자연에 사람·시·그림 등의 인문적인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역사문화적인 명승명소로 인식된다.⁹⁾ 이는 곧 명승이 장소 혹은 자연대상에 인간의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 이치를 투사하고, 역사적 의미와 선조들의 사상·행적을 되새기며 인문적 산수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곳임을 말한다.¹⁰⁾

명승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는 산천이라 할 수 있다. 岩·石·沼·潭·瀑布·臺 등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누정이나 사찰 같은 자연경관의 조망 지점과 고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그리고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장소 등이 주로 선택된다.

명승에 대한 기록물에는 크게 산수유기, 유람시, 기행사경도 등이 있으며, 조선 시대에 명승을 기록화 하는 것이 활발해진 이유로는 산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유람이 유행하면서 많은 유람기록이 창작되었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더불어 여말선초에 팔경 문화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국가적 혹은 개인적으로 거주지와 부임지의 명승경관을 시·서·화의 기록으로 남기고자하는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여러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八景 혹은 十景, 十二景은 뛰어난 열 가지의 혹은 그 이하나 이상의 명승을 지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특별한 누군가가 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산수유기, 유람시, 기행사경도 등에서 선조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던 오랜 문인적인 관습과 시·서·화를 배경으로 선별된 장소들이라고

8) 김대호, 「명승자원으로서 별서정원의 가치」,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쪽.

9) 이창훈, 『조선시대 유람록에 나타난 지리산 경관자원의 명승적 가치』,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3쪽.

10) 강정화, 「지리산 유산시에 나타난 명승의 문학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제41권, 동방한문학회, 2009, 367쪽.

볼 수 있다. 즉, 팔경·십경처럼 하나의 틀로 정형화된 전통 명승경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과정과 시간을 거쳐 선별적으로 택해진 사회문화적인 장소인 것이다.

1. 명승유람의 성행 배경

1) 명승유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명승을 유람하는 풍조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대부들에 의해 유람을 행하고자 하는 풍조가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18세기에 유람은 일반적인 문화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산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산수는 국가가 주관하는 신앙의 대상이거나 특정종교의 입지, 풍수에 의한 입지적 경관의 요소로 인식되었다. 주로 국가적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였으므로 국가주도로 명산을 신앙적 영역화·상징화했고, 불교가 수용되면서 명산에 사찰이 입지하였으며, 풍수적으로는 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¹¹⁾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명산을 수기의 장소로 인식하여 자연에서 유학적 도덕을 수양하며 삶의 이치를 터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어 후기 실학자들은 자연이 거주지 생활권을 선택하는 요소가 됨과 동시에 유산을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자하는 지식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¹²⁾ 즉, 산수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의미화 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연에 내재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11)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1쪽.

12) 최원석, 「동아시아의 명산과 명산문화 ; 한국의 명산문화와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의 전개」, 『남명학연구』 제26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227~229쪽.

13) 이상균, 위의 논문, 2013, 11~12쪽.

산수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사대부들의 유람의 목적도 다양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산수 자체를 감상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산수 감상을 중요시한 유람자들은 특히 금강산 유람자가 많았는데 송나라의 대 문장가 東坡 蘇軾이 ‘원하건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고싶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라는 말을 남겼음을 차용하여¹⁴⁾ ‘중국인들도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구경하는 것이 소원인데,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지 못한다면 되겠는가.’ 라는 구절이 많은 금강산 유산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금강산의 절경을 직접 감상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¹⁵⁾

Ⅱ-1) 나는 어려서부터 금강산의 명성을 듣고 늘 한번 유람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러러보고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신해년(1671, 현종12) 늦여름에 아우 子益이 필마를 타고 홀로 갔다가 겨우 한 달여 만에 內金剛과 外金剛을 두루 구경하고 돌아왔다. 이에 나는 금강산의 절경이 꼭 한번 유람해 보아야 할 만큼 아름답고 또 유람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¹⁶⁾

Ⅱ-2) 나는 두류산 아래에서 자라나서 어렸을 적부터 物外의 뜻을 갖고 있었으므로 평생의 사업을 모두 杖策의 일에 붙여버렸었다. …때로 혹 중을 만나 산을 얘기하면 금강에 대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고개를 쪽 빼고 동쪽을 바라보며 훌쩍 날아오르고 싶었던 것이 몇 해나 되었었다.¹⁷⁾

위의 자료Ⅱ-1)과 자료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금강산을 유람한 선인들이나 친지들의 경험담이 자극이 되어 금강산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바람은 더욱 커졌고 금강산 유람이 유행하였다. 더불어 금강산 유람을 위해 일부러 근방으로 자원하여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립은 「遊金剛山卷序」에서 “나도 금강

14)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2007, 175쪽.

15)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50쪽.

16) 김창협, 『農巖集』 卷23, 166쪽, 「東游記 : 自兒時已聞金剛名 輒有一游之願 然居常瞻望 如在天上 意非人人所可到也 辛亥孟夏 家弟子益 匹馬獨行 甫月餘日 徧觀內外山而歸 則益信其勝 不可不一游 而游又非難也」.

17) 양대박, 『靑溪集』 卷4, 556쪽, 「金剛山紀行錄 : 余生長頭流之下 少有物外之志 平生事業 都付杖策之功 …時或逢僧說山 語金剛不離口 矯首東望 思欲奮飛者 積有年矣」.

산 때문에 동쪽 고을로 온 사람이다.”¹⁸⁾라 하며 그가 금강산 유람을 위해 일부러 간성군수를 지원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최립과 한호는 금강산 유람 때문에 각각 간성과 흡곡에 수령으로 자원하였고 부임 후 1603년, 함경도 관찰사 이광준 등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하였다.

산수 감상 의 원초적인 목적 외에도 유람을 통해 안분과 탈속의 체험을 하고자 하였다. 안분과 탈속은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이상이였지만 현실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나거나 관직에 뜻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지 못하였다. 사대부들은 여가가 생기면 유람을 통해 안분을 즐기고자 하였고, 시간이 되지 않아 유람을 가지 못하면 유산기와 기행사경도를 감상하는 와유를 통해서라도 탈속의 자유를 느끼고자 하였다. 때문에 위정자들이 벼슬에서 물러나면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유람을 하고자 하였으며 외지로 좌천되는 것 또한 유람의 기회로 인식하기도 하였다.¹⁹⁾

Ⅱ-3) 푸른 하늘 버티고 선 높은 누각 붉은 난간 / 늘어선 산봉우리 마당과 섬
 들을 에워쌓네 / 三神山도 단지 이 구역 안에 자리하고 / 발뚱기 남짓 축소되어
 바다도 들어와 앉았어라 / 만리 長風 장한 유람 바로 눈앞에 있지 않나 / 무상한
 백년 인생 파도의 물거품 같도다 / 신선 만날지 어쩔지는 나와 상관없나니 / 한가
 한 벼슬 얻어 隱者 흉내만 내면 될 뿐 /²⁰⁾

대사간을 세 차례 역임한 이식은 1632년 인조의 사친인 정원대원군의 추숭이 예가 아님을 논하다가 강원도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부임시절 간성 동쪽 누대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금강산이 있는 곳에 현감으로 부임한 것을 장한 유람에 비유하며 좌천을 은일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사대부들은 유람을 하면서 문기함양을 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도 제술시험이 있었으며 문신들은 경연 혹은 왕실 행사에서, 외국 사신들과의 대면에서 시문 수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사대부들에게 제술 능력은 기본 소양이었

18) 최립, 『簡易集』 卷3, 298쪽, 「遊金剛山卷序 : 豈亦爲茲山東來之人也」.

19) 이상균, 앞의 논문, 2013, 49~55쪽.

20) 이식, 『澤堂集』 卷5. 76쪽, 「杆城東樓作 : 高閣朱闌倚碧虛 層巒列嶂繞庭除 鼇山只在封疆內 鯨海應知吠畝餘 萬里壯遊雙眼在 百年浮世一漚如 神仙可接非吾事 贏得閑官學遁居」.

다.21) 이렇게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제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 유람이 제시되었는데 다음의 『中宗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4) 行 副司果 魚得江이 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대체로 詩는 溪山·江湖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세사람 金時習이 출가하여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지은 시문이 당시 제일이었습니다. 당나라의 張說은 岳州 원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강산 때문에 詩思가 크게 향상되었고, 한나라 司馬遷은 禹穴과 衡·湘 땅을 탐방하고는 그의 글이 웅장 심원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使節처럼 금년에는 관동 지방을, 다음해에는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서 지방, 서해 지방, 관서 지방,朔方을 차례로 드나들면서 모두 탐방하게 하되 마음대로 실컷 유람하면서 그 氣를 배양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22)

자료Ⅱ-4)는 부사과 어득강이 중종에게 상소한 내용이다. 어득강은 김시습과 사마천이 유람을 통해 문기를 길렀음을 강조하며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그들에게 각 지역을 유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기를 배양시키면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도 시문에 있어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 상소하고 있다. 또한 이유원은 『林下筆記』에서 사마천만이 명산대천의 유람을 문장에 잘 활용하였다고 강조하였는데,23) 그를 비롯한 사대부들은 사마천의 문장이 명문인 것은 유람에서 얻은 것이라 하여 유람기에 사마천의 고사를 자주 인용하면서 유람의 목적을 밝혔다. 즉, 유람을 하는 행위는 자연 경물을 감상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며, 산수 유람의 목적에는 수려한 문장을 창작할 때 필요한 문기를 기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었다.

21)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양상」,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46~48쪽.

22) 『中宗實錄』 卷98, 37年 7月 27日(乙亥), 「行副司果魚得江上疏 其略曰…又曰 夫詩 多在溪山江湖之間 近世(金世習) [金時習] 出家行遍東韓 詩文冠世 唐之張說 倅岳州 得江山之助 詩思大進 漢之司馬遷 探禹穴窺衡 湘 其文雄深 臣意 擇年少詩文之士 假以使節 今年使關東 明年嶺南 湖南湖西 西海 關西 朔方 更出迭入 無不探討 遨遊多暇 培養其氣 萬一華使出來 足以當之」.

23) 이유원, 『林下筆記』, 卷37, 20쪽, 「蓬萊秘書 序 :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모두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심은 그래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문장에 대한 욕심은 쉽게 충족시키지 못하며, 山水에 대한 욕심은 더욱더 충족시키기 어렵다. 산수는 名山大川을 가리키는 것이고 문장 또한 명산대천에 있는 것인데, 명산대천은 오직 司馬遷만이 두루 유람하고 잘 활용하였다」.

더불어 사대부들은 명산·명소를 단순히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신수양과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하였으며 설화나 전설, 선인들의 행적과 의미가 축적된 곳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람을 하는 것은 곧 명산·명소가 지닌 내재적 의미를 탐미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⁴⁾

문인들은 명승의 답사를 통해 문화유산과 선인들의 행적을 찾고자 하였다. 선대 명현의 유적에 대한 유람은 후대의 문인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학과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식적 행위였다.²⁵⁾ 특히 청량산 유람의 경우, 16세기 전반에 주세붕과 이황이 청량산에 대한 유산기 「遊淸涼山錄」과 「周景遊淸涼山錄跋」을 각각 작성했고 이들의 청량산 유람에 대한 발문은 이 후에 퇴계의 문인들에게 널리 퍼진 청량산 유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청량산은 이황과 동일시되는 산이었으며, 이황의 제자들과 그를 존경한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따르고 본받기 위해 청량산에 올랐을 정도였다.²⁶⁾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유람도 있었으나 타의에 의한 유람 또한 존재하였다. 지방관이거나 공무로 지방에 파견된 경우 등 스스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외적 요인으로 인해 거주지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유람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관찰사의 경우 순력의 임무를 바탕으로, 보임지의 순회를 명분으로 삼아 도내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때문에 사대부들은 관동지역 같이 일반적으로 가보기 힘든 곳의 관찰사 부임을 유람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 자위하기도 하였으며, 지인들은 전별의 뜻으로 쓴 글에 유람을 하게 됨을 부러워하고 유람기를 써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²⁷⁾

이처럼 사대부들이 명승을 유람하는 목적은 다양했으며, 조선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문인들이 철저한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 명승지를 유람했던 것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개인의 즐거움도 더해지는 양상을 보였다.²⁸⁾

24) 이상균,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 제31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72쪽.

25) 이경순, 『17-18세기 사족의 유람과 산수공간 인식』,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4~35쪽.

26) 정치영, 앞의 책, 2014, 61~62쪽.

27) 이상균, 앞의 논문, 2013, 25~26쪽.

28) 이보라, 「조선시대 관동팔경도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21쪽.

2) 유람문화의 확산과 영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수에 대해 신앙의 대상에서 수기의 장소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 외에 유람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우선 명나라에서 유행한 유람문화가 조선에까지 유입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후기에 유람이 유행하면서 산수유기가 다수 창작되었으며 이것이 출판·유통되면서 대중적인 독서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부분의 조선 문인은 중국에 쉽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곳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정보가 있는 책을 읽는 등 와유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17세기 중앙화단에서는 「瀟湘八景圖」, 「西湖八景圖」 등 화적들, 『三才圖會』, 『海內奇觀』, 『名山圖』 등의 산수관화집, 인문지리지인 『西湖遊覽志』 등에 실린 다양한 중국의 팔경도·십경도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²⁹⁾ 산수를 유람하는 문인들과 지방에 관찰사로 부임한 관리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명승을 그리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더불어 명과 청의 회화를 수용하면서 그곳에 전래되어 있던 서양화법이 전해졌다. 조선전기의 산수화는 조선의 화가나 문인들이 가보지 않은 중국의 땅에 유교적인 이상을 담은 화풍에 심취해 있어 관념산수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의 산수화는 문인화가들의 생활터전 혹은 지방관으로 근무하며 보았던 풍광, 기행탐승 했던 풍광 등 조선의 풍경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걸맞게 진경산수화의 회화양식을 창출했다.³⁰⁾ 이처럼 새로운 회화양식의 도입과 실경을 와유의 기록으로 남기고자하는 문인들의 욕구는 유람이 더욱 성행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진경시대를 전후로 한 회화의 발전에 힘입어 17~18세기에는 관찰사들이 각 지역을 순력하며 화공에게 경승지를 그리게 하는 행위가 유행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특정 지역의 경승을 한 단위로 유형화한 팔경도나 십경도의 유행은 중국의 소상팔경도에 영향을 받아 문인들의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29) 이보라, 앞의 논문, 2005, 19~24쪽.

30) 이태호, 『옛 화가들은 우리땅을 어떻게 그렸나』, 생각의 나무, 2010, 13~18쪽.

유람문화가 발달하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 교통망이 발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의 도로망과 역원제, 봉수제를 개편하였는데, 조선전기는 군사·행정상의 목적으로, 그 이후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지역 간 물자수송을 위해 도로망이 정비되고 교통망이 확대되었다. 도로망의 정비와 확대는 유람지와의 접근성면에서 유람을 가고 오는 데에 용이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院의 확대는 유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 되었다.³¹⁾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도 유람이 성행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병자호란과 명의 멸망을, 대내적으로는 1·2차 예송논쟁으로 인한 남인·서인의 대립, 노소분열 등의 정국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중앙정치에서 반대파의 득세로 인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증가하면서 사대부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강호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출세에 뜻을 두지 않고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림들의 당쟁으로 여러 번 사화가 일어나면서 문인들은 삶에 대해 불안과 회의를 느꼈고 관직을 떠나 자연에 隱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은일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닌 잠시 혼란한 사회 상황을 탈피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신 수련을 하고 자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양상으로, 문인들은 산수자연을 수양의 매개물로 삼아 유람을 하면서 무위자연의 도를 체득하고자 하였다.³²⁾

한편, 유람의 장소는 대부분 원거리였는데 조선시대의 원거리 유람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경제적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때문에 원거리를 장기간 유람하는 문인들은 노비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유람하는 지역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등 사족층끼리의 연망을 이용하였고, 유람할 산중 사찰을 숙박지로 이용하거나 안내자로 승려를 동원하는 등 자신들의 특권을 활용한 유람도 잦았다.³³⁾

그러나 조선후기는 관청수공업에서 민간수공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시장과

31) 이상균, 앞의 논문, 2013, 13~14쪽.

32) 손명란, 「조선시대 산수화에 내재된 와유사상의 시기별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1~35쪽.

33) 이경순, 앞의 논문, 2013, 92~109쪽.

상업자본의 발달, 이양법과 이모작, 견종법 등 발달한 농업 기술에 의해 늘어난 생산량으로 평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신분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분이 상승한 평민들은 양반들이 누리던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동경하였고 이는 곧 미적 욕구의 확대로 연결되어 사대부의 문화를 모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많은 사행문학과 예술이 발달함에 따라 명승유람이 점차 폭넓게 성행하게 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사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산수 유람이 중인, 양민, 승려, 여성 등에게도 확대되었다. 제주거상 김만덕의 금강산 유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京華士族³⁴⁾층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른 서울 도심 및 교외 행락지로의 여행 또한 명승유람의 성행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서울의 도시적 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업의 발달, 사치성 소비문화의 등장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던 경화사족들은 古董書畫 수집 등 여가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경화사족들의 조선 문화에 대한 자존의식은 조선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시 문풍과 화풍으로 표현되었으며³⁵⁾ 이들을 위시한 다양한 산수유기의 발전은 명승유람이 여가생활 중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의미한다.

산수 유람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유람기록, 기행사경도와 같은 기유문예의 문화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던 기반활동이 되었다. 명승유람이 유행함에 따라 유람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시·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7세기 중반부터 유람이 크게 활발해져 산수유람 기록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는데³⁶⁾ 기행 시문이 양산되고 진경산수화와 기행사경도가 출현했으며 18세기 후반부터는 기행가사와 금강산 민화 등이 민간에 유통되었다. 조선후기 수많은 유람기록의 양산은 유람풍조 확산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유람자들은 대부분 유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의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34) 경화사족이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학문적 공감대를 가지고 학계의 변화를 주도하던 지식인 그룹을 가리킨다.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는 근기남인, 소론, 북학을 수용한 노론 낙론계 학자들이 중앙학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여러 대에 걸쳐 관료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장하였다(유봉학, 『경화사족의 사상과 진경문화』, 『진경시대』 1, 돌베개, 1998, 97~98쪽).

35) 유봉학, 위의 책, 1998, 97~100쪽.

36) 이상균의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2013)에 따르면 자신이 취합한 조선시대 1,101편의 유람기 중에서 조선시대 유람기의 편수가 15세기에 13편, 16세기에 41편에 불과하던 것이 17세기에는 272편, 18세기에는 373편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37)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의 유행에 따른 문화혁신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8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305~310쪽.

올바른 명승 유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록이 없는 유람지는 새로 기록하고 미진한 부분은 후대 사람이 보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유람이 힘들어 질 때를 대비하여 와유를 위해 젊었을 때 유람의 기록을 남기고자하는 의식도 있었다.³⁸⁾ 臥遊를 하기 위해 유람을 가는 사람들에게 풍광을 기록하여 오기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와유문화가 성행하게 된 것은 17세기에 유람기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전기는 산수자연에 대해 이상적·목적적인 관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에 비해 조선후기가 되면서 산수의 실제성을 강조하면서 산수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심미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럼으로써 산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유람이 유행하게 되었으나, 막상 유람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일상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와유이다. 와유란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거나 유람기를 읽으며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즉,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유람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선대 유람자들이 남긴 유람기를 읽거나 그림을 보는 등 간접체험인 와유로 대신하였던 것이다.

II-5) 臥遊란, 몸은 누워 있지만 정신은 노닌다는 의미이다. 정신은 마음의 신령함이고, 그 신령함은 어디든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 곳곳을 훤히 비취 보고 만리 먼 곳을 순식간에 내달리면서도 마치 어떤 교통수단도 필요가 없는 듯하다.…무릇 천하의 명승지가 얼마나 많겠는가마는 옛날의 문인과 시인들이 각자 시와 문장을 지어 거의 다 묘사해 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읽고서,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확 트였거나 바위들이 극도로 기괴한 절경을 이루었거나 바람과 구름이 밖으로 나오고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치에 대해 입으로 읊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³⁹⁾

38) 이종목,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문학회, 1997, 394~395쪽.

39) 이익, 『星湖全集』 卷56, 536쪽, 「臥遊帖跋 : 臥遊者 身臥而神遊也 神者心之靈 靈無不達 故光燭九垓 瞬息萬里 疑若不待於物…夫天下之勝觀何限 古之文人韻士 各爲詩若文 摸寫殆盡 人得以讀之 其奇秀曠朗 絕詭極怪 風雲出而鬼神入者 可以收擘在牙頰矣」.

조선후기의 선협적인 와유사상은 우리 산천을 근간으로 한 실제적인 산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 주자성리학이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되면서 한국 고유의 색채를 드러내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문인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⁰⁾ 그들은 실제로 산수를 답사하여 정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기행문학이나 기유도가 그려지면서 와유에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유산기를 읽고 유산도를 보는 것을 즐기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항상 자연을 곁에 두고자 했다.⁴¹⁾

조선후기 기행사경의 유행 또한 유람문화의 유행으로 인한 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⁴²⁾ 조선전기의 문인들은 靑山白雲圖나 四時圖, 瀟湘八景圖, 西湖圖를 즐겼다. 이러한 그림들은 대부분 관념화되어 있어 실제의 산수를 상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가보았거나 가보고 싶은 조선의 실제 풍광을 그린 그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와유의 수단으로 실경산수가 유행하였다. 유산기는 실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읽었을 때 상상하는 것에 그치게 되지만 산수화는 시각적으로 현장을 조금 더 실감나게 와유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애용되었던 것이다.⁴³⁾ 이러한 이유로 기행문학과 더불어 유람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혹은 화공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기고픈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행하게 되었다.

17세기에는 중국의 소상팔경에 영향을 받은 팔경·십경도와 주자의 武夷九曲에 영향을 받은 九曲圖가 그려졌다.⁴⁴⁾ 시문학에서 주로 다뤄지던 팔경·십경은 점차 기행사경도로 제작되었고 병풍으로 만들어져 와유의 수단으로 쓰였다. 유람기록이 글과 그림을 병행하여 남겨지기 시작하면서 18세기부터 기행사경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선의 금강산 및 관동지방 기행사경은 후대의 문인화가들의 기행사경을 더욱 촉진시켰다.

40) 손명란, 앞의 논문, 2014, 38~41쪽.

41) 이경순, 앞의 논문, 2014, 128쪽.

42) 이상균, 앞의 논문, 2012, 317쪽.

43)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89~94쪽.

44) 고연희, 앞의 책, 2001, 45쪽.

2. 팔경문화의 유입과 확산

조선시대 유람 풍조가 확산되는 양상과 더불어 중국 팔경문화의 유입으로 형성된 각종 팔경은 조선의 유람기와 기유도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다. 승경을 여덟 가지 소표제로 선별하여 시·서·화로 작품화하는 관습은 중국의 팔경시와 소상팔경도에서 시작되었다.

북송대 팔경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상팔경이 있는데 瀟湘八景은 중국 양자강 이남 호남성에 위치한 동정호와 남쪽 영릉 부근으로 ‘瀟江’과 ‘湘江’이 합쳐지는 곳의 여덟 경관을 말한다. 그 중 팔경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宋迪의 「소상팔경」은 平沙落雁, 遠浦歸帆, 山市靑嵐, 江天暮雪, 洞庭秋月, 瀟湘夜雨, 烟寺晚鍾, 漁村夕照의 경관을 소표제로 선별하고 조화롭게 배열하였다. 이는 문학과 회화의 표현에서 하나의 규범적 틀이 되었고, 이 후에도 소상 지역이 관료 조직에서 소외된 사람들, 정치적 입지를 다지지 못한 문인들의 처지와 심상을 대변하는 고사의 배경이 되어 여러 문인들이 송적의 소상팔경과 유사한 표제로 계속해서 시와 그림을 창작하였다.⁴⁵⁾ 소상팔경은 소상 지역의 계절적·시간적 변화와 전체적인 승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 뿐만 아니라, 소상 지역의 본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작가의 은둔·은일·비애의 심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고 볼 수 있다.⁴⁶⁾

한편, 남송대 화가들이 중국 절강성 항주에 위치한 서호와 그 주변 산의 사계절 풍경 중 뛰어난 열 가지 경관들을 선택하여 출연하게 된 西湖十景은 서호 주변의 지명과 계절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표제는 蘇堤春曉, 平湖秋月, 花港觀漁, 柳浪聞鶯, 雙峰插雲, 三潭印月, 雷峰夕照, 南屏晚鐘, 曲院風荷, 斷橋殘雪 등의 열 가지 경관을 말한다.

45)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화』, 집문당, 2002, 32~33쪽.

46)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1~12쪽.

〈표 1〉 소상팔경과 서호십경의 제목

	소표제	해석
소상팔경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
	遠浦歸帆	먼 바다로부터 돌아오는 돛단배
	山市靑嵐	산시에 걸히고 있는 맑은 아지랑이
	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눈
	洞庭秋月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달
	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밤비
	烟寺晚鍾	연무에 쌓인 산속에 자태를 드러내는 절로부터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漁村夕照	어촌에 찾아드는 저녁노을
서호십경	蘇堤春曉	소제에서 보는 안개 낀 봄날의 아침
	平湖秋月	평호에서 바라보는 가을 달
	花港觀漁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노니는 붉은 잉어를 바라 봄
	柳浪聞鶯	버드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짹짹 소리
	雙峰插雲	서호에서 바라보는 남고봉과 북고봉
	三潭印月	호수수면에 반사된 세 개의 달
	雷峰夕照	영봉산의 탑이 석양에 물들어 서호에 비치는 모습
	南屏晚鐘	정자사에서 저녁에 종을 칠 때 산과 호수에 울려 퍼지는 소리
	曲院風荷	여름밤 호수의 연꽃이 만개해 향을 진동시킬 때
斷橋殘雪	아치형의 돌다리에 내린 눈이 가운데부터 녹기 시작하는 모습	

소상팔경이나 서호십경처럼 실제 지역명을 소표제에 넣어 팔경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뛰어난 절경을 알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승경을 형상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승의 수를 팔경에서 십경, 십이경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소상팔경의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헌상에서의 기록으로는 고려 대 명종이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을 주제로 시와 그림을 창작하게 한 것이 최초이다.

Ⅱ-6) 이녕은 전주 사람으로 소년 시절부터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그의 아들 이광필이도 또한 그림으로 명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이 글 잘하는 신하들에게 瀟湘八景에 대한 賦를 짓게 하고 이어 이광필에게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게 하였다. 당시 왕은 그림 특히 산수화에 정교하였는데 이광필, 고유방 등과 함께 종일 싫어할 줄을 모르고 物像을 그리면서 나라의 정사는 소홀히 하고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데로부터 측근자들은 왕의 뜻을 迎合하여 왕에게 일을 상신하는 일

체 글을 간략하게만 하려고 하였다.⁴⁷⁾

명종은 이녕의 아들인 화가 이광필에게는 소상팔경을 그리게 하였고 문신들에게는 소상팔경시문을 짓게 하였는데 그 중 이인로와 진화가 가장 뛰어났다고 하였다. 당시 고려는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화적의 교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송대의 화풍이나 회화의 주제에 많은 영향을 받아 소상팔경도 또한 유입되었다.⁴⁸⁾

특히 팔경시는 무신정권기에 크게 유행하는데, 이 때 폄하되었던 문신들이 文의 가치를 높이고 효용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II-7) 匪懈堂瀟湘八景詩卷은 판서 윤공의 집에 소장된 東書堂古帖에 실린 송 영종 진한의 팔경시를 얻어 匪懈堂이 새롭게 쓴 것이다. 이제 이것을 베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그 권을 이르러 팔경시첩이라 불렀다.⁵⁰⁾

조선 초 안평대군은 송나라 영종의 「소상팔경시」를 보고 문인들에게 시를 짓고 안견에게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하는 등 소상팔경을 주제로 시화첩인 『匪懈堂瀟湘八景詩卷』을 제작하였다.

팔경은 이름난 명승지나 소표제를 선택하는 개인의 취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다. 1398년(태조 7)에 천도한 수도를 그린 「新都八景圖」 병풍을 하사받아 창작한 정도전의 「新都八景詩」⁵¹⁾는 새로운 수도의 번영을 기원하며 한성부의 경관을 이상적인 도시의 풍경으로 그렸다고 추정되는데, 궁중으로부

47) 『高麗史』 卷122 「列傳」 第35 「李寧」외, 「李寧全州人少以畫知名…子光弼亦以畫見寵於明宗王命文臣賦瀟湘八景仍寫爲圖 王精於圖畫尤工山水與光弼高惟訪等繪畫物像終日忘倦軍國事慢不加意近臣希旨凡奏事以簡爲尙」.

48) 안휘준,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217~223쪽.

49) 안장리, 앞의 책, 2002, 44~47쪽.

50) 박평년, 『朴先生遺稿』, 457쪽,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 :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 判書尹公暉家藏親筆匪懈堂得宋寧宗入景詩於東書堂古帖 寶其宸翰 因今搦其詩畫其圖 名其卷曰八景詩」.

51) 정도전의 「신도팔경시」의 팔경은 도읍지의 산하를 일컫는 畿甸山河, 왕이 거주하는 경성에 있는 궁궐과 원유를 가리키는 都城宮苑, 별처럼 늘어선 여러 관청을 말하는 列署星拱, 바둑판처럼 벌어진 여러 방을 일컫는 諸坊碁布, 동문에 있는 병사 훈련지를 가리키는 東門教場, 서강에 드나드는 배를 말하는 西江漕泊, 남쪽나무(노량진)을 건너는 팔도의 사람들을 일컫는 南渡行人, 북교에서 기르는 말을 가리키는 北郊牧馬의 여덟 경관을 나타낸다(안장리, 위의 책, 2002, 178~189쪽).

터 서민의 삶까지 고루 다룬 것을 알 수 있다.⁵²⁾ 한양으로 천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이러한 그림과 시는 중국의 「北京八景圖」처럼 새 왕조와 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⁵³⁾

고려 대 중국에서 도입된 소상팔경이 토착화되면서 조선전기에는 새 왕조의 칭송을 위한 목적의 신도팔경 등으로 변형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팔경의 대상이 문인들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확대되어 점차 자신 주변의 명승을 알리기 위한 수단, 주변을 이상화·재창작하는 수단으로 변화했다. 즉, 소상팔경이라는 중국 예술의 주제가 고려 말 왕실로 유입되었고 16세기를 지나며 왕실의 문화에서 문인들의 문화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⁵⁴⁾ 조선후기를 지나며 팔경을 주제로 한 8폭 병풍과 8폭 화첩의 제작이 유행하였고 잡가와 민화가 제작되는 등 넓게 저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소상팔경은 중국의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향유의 장소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재인식되었다. 또한 소상팔경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우리 정서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독자적인 팔경으로 응용되어 발전하였다.

II-8) 辛卯年 늦가을에서 신을 부쳤는데 혹 받아보셨는지요. 그 중에 말씀드린 ‘愛吾廬八景’의 詩는 바로 아우가 조만간에 일생을 마칠 곳에 걸 것이니 바라건대, 澹園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각기 한 마디씩 해주시되, 楷書로 한 통씩 써 보내시어 刻字하여 懸판하기 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그림은 이름 있는 작품이 극히 적습니다. 근래에 와서 자못 그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모두 중국의 그림을 모방하여 본뜬 것이요, 본국의 산천이나 인물에 이르러서는 잘하는 사람이 더욱 적습니다마는, 내년엔 구득되는 대로 부쳐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仙鄉의 좋은 작품은 응당 이곳의 즐하고 투박한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姚雨齋같은 사람의 畫格은 생각건대 雅淡한 운치가 많을 것이니 ‘澹園八景’을 만일 그린 것이 있거든 나를 위하여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⁵⁵⁾

52) 이상아, 앞의 논문, 2008, 61쪽.

53) 나혜영, 「조선후기 한양명승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9~24쪽.

54) 이상아, 위의 논문, 2008, 61~69쪽.

55) 홍대용, 『湛軒書』外集 卷1, 118쪽, 「與鄧汶軒師閱書：辛卯秋杪 有寄一書 想或登照 其中愛吾廬八景 卽弟早晚畢命之所 望與澹園諸公各賜一言 楷寫一通 以便刊揭…弊邦丹青 絕少名品 邇來頗有作者 亦皆倣像華畫 至本國山川人物 能者尤少 計於嗣歲 隨得奉寄 仙鄉才品 宜不如此間之庸朴 如姚雨齋畫格 想多雅致 澹園八景 如有模寫 幸爲我致意」.

자료Ⅱ-8)을 살펴보면 홍대용은 동생이 살게 될 곳에 愛吾廬(청주목 관할지)팔경을 정하고 지인들에게 팔경시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처럼 문인들은 소상팔경을 모티브로 관념적인 이상경을 표현하던 것에서 점차 벗어나 자신의 고향 혹은 부임지를 배경으로 한 팔경을 지속적으로 창작하였다. 상상속의 소상의 팔경을 창작하는 것에서 현실의 명승을 팔경화하려는 경향으로 변화함은 명승을 상징화 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⁵⁶⁾

한편, 사대부들 사이에서의 유람문화풍조 확산은 각 지역에서 팔경을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나는데, 거주지나 부임지를 팔경으로 이미지화하여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려 문신인 김극기가 남긴 「江陵八景詩」⁵⁷⁾는 강릉의 대표적인 팔경을 선정하여 읊은 것으로 한국팔경시의 효시라 불린다. 이는 한국의 팔경문화가 강원지역의 경승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지역의 명승을 팔경으로 정하는 일은 『東國輿地勝覽』이나 郡誌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별 팔경으로는 關東八景⁵⁸⁾, 關西八景⁵⁹⁾ 등이 있다.

팔경의 소표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소상팔경의 四言絶句體 형식으로 앞에 두 글자는 장소, 뒤에 두 글자는 때나 경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둘째로 실제 장소명 자체를 소표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각 지역 팔경에 명칭이 정해졌으며, 팔경은 곧 명승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점차 정착되어 갔다.⁶⁰⁾

56) 이상아, 앞의 논문, 2008, 62~63쪽.

57) 「강릉팔경시」의 소표제는 綠筠樓, 寒松亭, 鏡浦臺, 嶺山鍾, 安神溪, 佛華樓, 文殊堂, 堅造島로 구성되어 있다.

58) 관동지방(현재의 영동지방)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로 통천의 叢石亭, 고성의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洛山寺,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울진의 望洋亭, 평해의 越松亭을 말한다.

59) 관서지방(평안도)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로 강계의 仁風樓, 의주의 統軍亭, 선천의 東林瀑, 안주의 百祥樓, 평양의 練光亭, 성천의 降仙樓, 만포의 洗劍亭, 영변의 藥山東臺를 말한다.

60) 이상아, 위의 논문, 2008, 76쪽.

Ⅲ. 제주명승 인식의 내용

제주는 예로부터 뛰어난 경승지로 알려졌으나 한양과의 거리가 멀고 뱃길로 가는 길이 험난하여 타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남겨진 명승 기록들은 타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유람의 유행과 팔경문화의 성행이 이 기록물들과 제주의 명승인식에 영향을 주었는지,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꼭 전반적인 풍토가 아니라도 유람자 곧 기록자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 유람기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당시의 문화풍조가 개인을 통해 제주의 명승기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는 주로 중앙에서 임명된 관리나 유배자들의 저술과 회화활동을 통해서 명승의 기록들이 남겨져있다. 목사나 유배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뛰어난 경관에 이름을 붙이고 팔경이나 십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시문이나 회화로 시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에서는 크게 한라산 유산기, 지방관의 순력 기록, 문인들의 영주십경시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라산 유람자의 명승 인식

한라산은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이라 불릴 정도로 영험한 산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금강산과 지리산에 비해 먼 거리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유람을 하는 행위는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한라산 유람을 한다는 것은 더욱 희소성 있는 일이었고 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과 유람의 열망은 개인의 문집에서 간간히 나타나고 있다.

Ⅲ-1) 瑞石山(현재의 무등산)은 호남의 여러 산 가운데 특별히 높고 큰데, 그 위에 오르면 한라산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그리고는 서석산 정상에 올라 남해를 굽어보고 바다 속에 구름처럼 아른아른한 것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저것이 한라산이다.” 할 것이니, 이 어찌 참으로 뛰어난 장관이 아니겠는가. 조공은 먼저 가서 저를 기다리십시오.⁶¹⁾

Ⅲ-2) 기사년(1689, 숙종15) 2월에 선생께서 世子 세우는 일로 상소하였는데, 臺臣의 탄핵으로 제주도에 安置하라는 명령이 내렸다.…선생께서 일찍이 제주도를 유람한 적이 있는 老僧을 초청하여 제주도의 물정·풍토와 경치를 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라산을 더욱 자세히 물으셨다. 또 이어 물으셨다. “만일 절 뒤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는가?” 노승이 답하였다. “하늘이 개고 기후가 맑은 날에는 볼 수 있는데, 마치 한 덩이 바다 구름이 아득한 곳에 보일 듯 말 듯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⁶²⁾

Ⅲ-3) 선생이 이르기를 “내가 젊었을 때에, 글을 읽어 과거에 급제해서 海路를 따라 天朝에 조회를 가게 될 경우 거센 바람에 파도를 헤치고 간다면 가슴이 상쾌하겠다고 항상 염원했었네. 그런데 이번 길에 이 염원을 이루게 된 것은 다행이네. 그러나 한라산을 한 번 올라가 보는 것이 또한 소원인데, 가자마자 圍籬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 이 소원을 이룰 길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한스럽네.” 하였다.⁶³⁾

자료Ⅲ-1)은 김창협이 동북현감으로 가는 조정망에게 보내는 서인데 김창협이 서석산 꼭대기에 올라서 어렵게나마 한라산의 절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

61) 김창협, 『農巖集』 卷21, 7~8쪽, 「送趙使君(景望) 宰同福序 : 瑞石在湖南 諸山特高大 登其上 可以望見漢拏云…既又登瑞石之巔 以臨南海 望見海中隱隱有若雲氣者 指而語曰 此漢拏之山也 不亦瑰特殊絕壯觀也哉 公行矣 且須我」.

62) 박광일, 『宋子大全』附錄 卷16, 61~63쪽, 「朴光一錄 : 己巳二月 先生以建儲事上疏 臺臣論啓 有濟州安置之命…先生招致老僧之曾遊瀛洲者 問其物情風土及景致 而於漢拏山 尤致詳焉 又問曰 若登寺後第一高峯 則可以望見漢拏山耶 老僧對曰 天朗氣清之日可見 而有若海雲一片 浮在微茫有無之間矣」.

63) 권상하, 『寒水齋集』 卷21, 62쪽, 「己巳行中語錄 : 先生曰 少時常願讀書決科 得以海路朝天 則長風破浪 快豁心胸矣 今行得諧此願 幸也 然一上漢拏山 亦所願也 而去作圍中之人 無由獲遂 是可恨也」.

도 곧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료Ⅲ-2)와 자료Ⅲ-3)은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되면서 남긴 어록들이다. 두 사료 모두 한라산에 대한 우암의 관심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유배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해오는 말로만 듣던 한라산을 이 기회에 가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한라산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은 문인들이 쉽게 유람하기 힘든 곳이었지만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 했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기회가 닿아서 제주에 오게 되면 꼭 가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라산 유산기록⁶⁴⁾

시대	유산자	작품명	출전	유람 동기	유산자 신분
16세기	임제	남명소승	『白湖續集』권2	개인적 유람	개인 유람
17세기	김상헌	남사록	『淸陰全集』	산신제	안무어사
	김치	유한라산기	『耽羅誌』(이원진)	개인적 유람	제주관관
	이증	남사일록	『南槎日錄』	산신제	안핵 겸 순무어사
	김성구	남천록	『南遷錄』	산신제	정의현감
18세기	이익태	지영록	『知瀛錄』	개인적 유람	제주목사
	이형상	남환박물	『南宦博物』	개인적 유람	제주목사
	조관빈	유한라산기	『梅軒集』卷15 記	개인적 유람	유배인
19세기	이원조	유한라산기	『耽羅錄』上	개인적 유람	제주목사
	최익현	유한라산기	『勉菴先生文集』卷20 記	개인적 유람	유배인
	김희정	한라산기	『海隱先生文集』	개인적 유람	제주민

현재까지 발견된 한라산 유산기는 대략 10여 편 정도에 불과하며 16~19세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보면, 우선 한라산 유산자가 제주에 부임한 관원이거나 제주로 유배 온 지식인이 대부분이었으며 19세기의 김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세기에는 전쟁 직후 민심수습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안무어사,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태 진정을 위해 파견되었던 순무어사 등 양난 이후 지방을 살피고자 하는 중앙의 노력으로 인하여 제주에 파견되는 관원들이 있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분란을 일으켰다는 명목의 유배인들이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로 유배를 당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유람 동기를 살펴보면 공무의 목적과 개인적 유람으

64) 강정화,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제26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145쪽; 고운경,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7쪽을 참조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로 뚜렷하게 양분된다. 김상헌·이증·김성구와 같이 관원의 경우 공무인 산신제를 지내려 한라산에 올랐다가 유람을 겸하였고, 같은 관원이지만 제주관관 김치, 제주목사 이익태·이형상·이원조는 공무의 여가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유람에 해당한다. 유배로 제주에 온 조관빈⁶⁵⁾, 최익현⁶⁶⁾의 경우 해배되어 돌아가기 전에 한라산 유람에 대한 염원을 풀고자 유람길에 올랐으며 유일한 제주민인 김희정의 경우는 최익현의 밑에서 수학한 인물로 한라산 유산기를 남기게 된 배경에 최익현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⁶⁷⁾ 또 다른 특징은 남아있는 한라산 유산기가 단일 작품이 아니라 각각 임제의 『南溟小乘』, 김상헌의 『南槎錄』, 이증의 『南槎日錄』, 김성구의 『南遷錄』, 이익태의 『知瀛錄』, 이형상의 『南宦博物』 중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김치·조관빈·이원조·최익현의 「遊漢拏山記」와 김희정의 「漢拏山記」는 독립된 유산기라는 것이다. 이는 곧 유산자들이 점차 한라산을 명산이라 인식하고 비중있게 기록하고자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시대별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산수유관을 살펴보면, 한라산은 중국의 삼신산 중 영주산에 빗대어 불리며 산신의 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유산기에 남겨진 기록들에서도 관련 설화들이 명시되어 있다. 16세기에 쓰인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이러한 신선의 산 한라산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였고, 이것은 한라산 등람의 가장 일차적인 동기가 되었다. 임제는 악천후로 인해 5일 여를 기다린 후에야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한라산의 선경을 볼 때마다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며 흥취를 극대화하였으며 신계와 관련된 고사와 상징물을 사용하며 한라산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였다.⁶⁸⁾ 더불어 17세기에 쓰인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산신제라는 책무를 행하기 위해 등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한라산을 영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행위라고 보인다.

반면 18세기에 쓰인 이형상의 『남환박물』의 「誌地」條에 나타난 한라산에 대한 기록은 그의 박물학적 관심이 드러난다. 처음으로 한라산을 식생별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고 한라산의 자연현상과 기후를 자세히 살피고 있으며 기후에 따

65) 조관빈은 대사헌에 있으면서 소론의 영수 격인 이광좌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눈척하였다는 죄로 1731년에 대정현에 유배된다.

66) 최익현은 1873년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여 대원군을 실각하게 하고 자신은 제주목에 유배되었다.

67) 강정화, 앞의 논문, 2014, 145~146쪽.

68)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0~31쪽.

른 제주인들의 옷차림과 생활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형상은 백록담이라는 이름의 유래인 백록과 신선의 전설 등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사물이나 경관을 실측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라산 정상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에 위치한 오름·하천·숲·섬 등을 나열하였는데, 제주의 중심인 한라산에서 제주 땅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식견은 「漢拏壯囑」이 어떠한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⁶⁹⁾

앞서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19세기에 쓰인 이원조의 「遊漢拏山記」에 나타난 한라산은 산신의 장소가 아닌 공자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였다. 그는 이형상과 마찬가지로 한라산에 얽힌 설화들을 미신이라 치부하며 눈에 보이는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등람하는 자체를 도를 배우는 것이라 하여 구도자적 자세로 등람하였으며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자기수양의 대상으로 삼았다.⁷⁰⁾

2. 지방관의 탐라순력과 명승 인식

17~18세기의 제주의 명승 기록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순력을 행하였던 목사에 의해 남겨진 기록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17세기 말 이익태의 『知瀛錄』과 「耽羅十景」을 살펴보겠다.

1)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과 「탐라십경」

李益泰는 숙종 20년(1694) 5월 26일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숙종 22년(1696) 5월에 제주목사 고신을 박탈하기까지 만 2년여 간 제주목사직을 수행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제주를 두 번에 걸쳐 순력한 후 여러 치적을 행하였고 탐라의 열 가지 경관을 선정하여 『탐라십경도』를 제작했다. 이익태는 육지 사람들이 제주에

69) 윤미란, 앞의 논문, 2008, 43~47쪽.

70) 윤미란, 위의 논문, 2008, 50~52쪽.

대해 알고 있는 곳이 적은 것에 안타까워하며 유명한 절경과 숨겨진 경치를 찾아내 십경을 선택하고 병풍형식의 십경도를 제작하였다. 현재 십경도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각 그림의 뒷면에 사적의 설명을 서술한 형식으로 제작하였음을 발문에서 언급하였다.

Ⅲ-4) 기묘한 바위 폭포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등한히 보고 넘겨버려서 사실을 기록하여 저술이라고 칭할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애석하였다. 내가 몇 년 동안 두 번을 巡歷하면서 풍속을 물어 보고, 틈을 내어 소위 불만한 곳으로 前人들의 족적이 닿지 않았던 곳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제주를 두루 밟아 그 중에서 뛰어난 十景을 淸龍眠手摹形畫(용이 잠자는 사이에 손바닥 모양을 빠르게 그림)로 한 개의 자그만 병풍을 만들어내고 그 위 면에 그 사적을 서술하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⁷¹⁾

이익태가 『지영록』에서 선정한 탐라의 10경은 순력 순서대로 조천관, 별방소, 성산, 서귀포, 백록담, 영곡, 천지연, 산방, 명월소, 취병담을 말한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5) 朝天館 : 주성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암반이 해구에 뒤섞여 복잡하며, 저절로 한 개의 작은 섬으로 된 진이다. 돌을 높이 성을 쌓아 둘러는데, 그 꼭대기 가운데에 공해 수 10칸이 있는데, 동남쪽 성 모퉁이 제일 높은 곳에 객관의 세 기둥이 아득히 반공에 걸렸고, 단학이 빛을 받아 빛나며 편액에는 연복정이라 하였다. 사면이 바다에 둘러있어 해조가 물러가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교를 만들어 이것으로 성문으로 통한다. 여기가 바로 높은 사람이나 평민들이 항해하러 왕래할 때 대풍하는 곳이다. 그래서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조방장을 두고 있다. 성 주위는 4백28자, 높이가 9자이며, 정군이 2백41명인데, 소관하는 것은 봉수 하나, 연대 셋, 배 닿는 포구 세 곳이다. 성 밑의 포구는 어그러지게 돌을 쌓아 방축 가운데에서 수문을 열면 뱃길로 통하여 출입하게 된다. 평상 때에는 그 안에 배를 둔다. 성 바깥의 하륙하는 곳에는 건너기가 좋게 되어 있다. 정이 있는 포

71)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 65쪽.

구 마을은 수백호가 굴림에 즐비하여 배들은 포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관방의 형승으로는 九鎮(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차귀진, 명월진, 애월진) 중에서 으뜸이다.⁷²⁾

Ⅲ-6) 別防所 : 조천관에서 해변 동쪽으로 60리를 가면 넓은 들판이 망창한테 포가 보이는 곳이다. 성은 모래자갈가에 있는데 둘레는 2천3백90자, 높이는 7자, 타가 1백39, 격대가 7, 동서남에 세 개의 문이 있다. 북수구로는 조수가 드나들어 그 다음 객관 뒤에 작은 못에 뚫어 놓았다. 성 안에는 두 개의 창이 있는데, 각가지 곡식이 6천 2백여 석이며, 군기가 잘 다듬어진 게 무기고에 많이 쌓여 있다. 정군은 4백7이고 봉수는 2, 연대는 3이다. 직군은 매달 모두 여섯 번으로 나누어 선박과 포구 세 곳을 관장한다. 지미봉이 동쪽 머리에 우뚝 솟아 있고, 소섬이 바깥 바다에 멀리 머리를 내밀어 있다. 성지와 기계가 所 중에서는 가장 큰 鎮이다. 땅 이름은 도의탄이다. 정덕 경오에 목사 장림이 이곳과 牛島이 왜선들이 와서 정박하는 곳과 서로 가까우므로 김녕방호소를 철거하고 여기에다 이설하였다고 한다.⁷³⁾

Ⅲ-7) 明月所 : 주 서쪽 40리가 바로 애월소이고 애월을 지나 25리에 명월소가 있다. 성 둘레는 3천 2십자, 높이는 8자, 타가 1백23, 격대가 7, 정군이 4백63, 봉수 2, 연대 7이다. 북성 안에 솟는 샘이 있어 물이 돌구멍에서 솟아나는데 맑고 차며 도도히 흘러 돌로 쌓은 제방 주위는 못처럼 흙병하게 차 있다. 비록 천만의 군이라도 길어다 쓸 수 있게 무궁하다. 동문 밖에도 또한 큰 시내가 있어 성을 안고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안의 샘물과 합쳐져, 북수구 바깥에서 많은 노 밭에 물을 대면서 북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대개 주성 동쪽으로 정의현에 이르기까지 물이 솟는 우물이 있는 하천은 없는데 이 성 안팎에는 길게 흐르는 물이 유독 있는 것이다. 서쪽으로 바라보면 10기나 되는 기 모래밭이 널리 있고 영록한 관원의 굴은 둘러가며 금빛을 내고 있다. 그 사이에 세 대의 굴이 있는데, 배령굴은 깊고 길어 거의 30리나 되고 석종유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비양도 안에는 전죽이 잘 자라, 매년 수천다발을 잘라내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을 고대라고 한다. 문관, 창곡, 군기 여러 가지 갖춘 것이 별방과 1·2위를 다룬다.⁷⁴⁾

72)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65~66쪽.

73)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위의 책, 1997, 66쪽.

74)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위의 책, 1997, 71쪽.

Ⅲ-8) 西歸浦 : 정의현에서 서쪽 60리를 가면 한교에 바로 닿고, 얼굴을 남쪽으로 똑바로 산기슭으로 30리를 꺾으면 지진두에 이르는 곳이다. 석성의 둘레는 8백 25자, 높이는 12자이다. 가운데에 한 개의 우물이 있는데 성에 구멍을 뚫어 물을 끌어 들였다. 옛적에는 홍로천 하류에 있었다. 탐라조와 대원 때에는 후풍처였다. 목사 이옥이 서귀로 옮겨 쌓았다. 성 동쪽 1리에 푸른 절벽이 포구에 깎아 세운 듯 서 있는데 기암이 별처럼 좌우로 벌려 있고 가운데 석문이 열린 듯 큰 시내가 바로 흐르다가 10장을 날아 떨어진다. 황홀하기가 마치 구슬이 흩어지고 옥이 부서지는 듯하다. 못은 깊은 웅덩이를 이루어 물결치는 푸른 바다와 통하고 있다. 소나무 수 십 그루가 나란히 서서 줄을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 1리에 천지연이 있는데 돌낭떠러지가 병풍처럼 에워싸 깊숙하고 웅혼하다. 폭포가 흐르면서 빼어난 경치로, 서로가 백중 한 동쪽 폭포는 곧 정방연으로 일명 경로연이라고도 한다. 이 연의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밭에 많이 물을 대고 있다. 성을 마주하여 바다가운데 문도, 초도, 호도, 삼도가 있다. 모두 신령스런 물결 가운데 석벽이 높이 솟아 있고 나무가 무성하다. 속담에 말하기를, 한라산 기둥 봉우리를 꺾어낼 때에 우뚝한 것을 쪼갠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⁷⁵⁾

이익태의 「탐라십경」 중 조천관·별방소·명월소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뛰어난 명승지라서 십경에 포함되었다기보다는 군사지로서 방어 목적을 띠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구성은 공통적으로 앞부분은 각 명소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 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나 봉수·연대가 각각 몇 개가 있는 지,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다.

조천관·서귀포·명월소 세 곳은 조천관의 설명에서 언급되었던 조선시대 9진에 해당되며⁷⁶⁾ 제주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1590년(선조 23) 이옥 목사가 조천 포구에 축성한 조천진은 화북진과 더불어 육지를 출입하는 관문 중 하나였으므로 관원과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었다. 진성은 사령관을 도와 방어하는 장수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1510년(중종 5) 장림 목사가 왜구의 우도 접근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별방진은 제주목의 동쪽을 지키는 군사작전

75)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67쪽.

76) 노재현 외, 앞의 논문, 2009, 97쪽.

상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군량을 비축하는 별창고가 서문 남쪽에 있었다. 동쪽의 거진이 별방진이라면 서쪽의 거진은 명월진이었는데 명월진은 같은 해 장림 목사가 왜구의 비양도를 통한 접근을 막고자 목성으로 설치하였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경록 목사가 돌로 축성하였고 성안에는 감천이 있어 성 밖으로 흘러 논밭이 형성되었다.⁷⁷⁾

전략적 요충지를 유명한 경치로 십경에 꼽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천관은 육지와 연결되어 오가는 관문으로써 육지로 나가는 자는 모두 여기서 바람을 기다리고, 전라도를 경유하여 세 고을에 들어오는 자도 모두 이곳과 애월포에 배를 댄다고 하여 번성한 진이었으며⁷⁸⁾ 서귀포의 경우, 탐라조와 대원 때 배가 항해하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었다. 또한 조천관은 별방소와 더불어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를 묵게 하는 곳인 객관이 있어 숙소의 개념도 있다고 보아 단순히 군사지이기 때문인 이유만으로 명승지로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관을 묘사하는 방법에는 풍경묘사와 행위묘사가 있다. 행위묘사는 탐승 행위 자체를 묘사하여 동적인 현장감을 부각시키는 반면 풍경묘사는 유람자의 감흥을 토크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하는 데 용이하다.⁷⁹⁾ 이익태의 경우 10경에 대해 묘사할 때 주로 세밀하게 풍경묘사를 하는 방법으로 경관을 표현하였다.

Ⅲ-9) 白鹿潭 : 한라산 맨 꼭대기는 하늘에 높이 솟아 돌이 둥그렇게 둘러 있는데 주위가 약 10리이다. 그 가운데가 마치 술과 같이 내려갔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다.潭의 북쪽 구석에 기우단이 있다. 숲이 벌여 있고 사계절 긴 봄 마냥 넉넉한 향기가 두루 멀리 미치어 복기는 신발에 까지 스며든다. 산열매는 칠과 같이 검은가 하면, 혹은 주사처럼 빨개서 맛은 달콤하고 또한 향이 있어 진짜 선과이다. 산 위에는 바람기운이 항상 싸늘하여 비록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덧옷을 생각나게 한다. 끝 간데를 눈으로 보면 사방이 바다인데 물과 하늘이 서로 맞붙어, 가까이는 여러 섬들이 눈 밑에 별처럼 벌여 있고, 멀리는 등래, 영과, 유구, 안남, 일

77) 김봉옥, 「삼성·구진과 봉수대·연대」, 『탐라순력도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295~297쪽.

78) 이보라, 「17세기 말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제17권, 온지학회, 2007, 79쪽.

79)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산수유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4쪽.

본이 역시 아득한 가운데에 어렴풋하게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웅장한 경관을 장대하게 구경하다보면 여기에서는 창해가 술잔이오, 천하가 작은데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해 이 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어떤 사냥꾼이 밤에 潭가에 엎드려 있는데 천 몇 백이 되는 사슴떼가 와서 이 가운데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슴 한 마리가 괴연하고 색깔이 하얀데 등 위에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사냥꾼은 놀랍고 괴이하여 감히 범접하지를 못하여 다만 뒤떨어진 사슴 하나를 쏘았다. 조금 있으니 사인이 사슴떼를 점검하는 모양 같았는데 긴 휘파람을 한 번 소리내자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대략 이러하다.⁸⁰⁾

Ⅲ-10) 瀛谷 : 한라산 서쪽 기슭 대정현 지역에 있다. 백록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산등성이를 넘고 골짜기를 건너 25리를 오면, 낭떠러지가 걸려 있고 절벽이 깎아 세워져서 층층이 기암괴석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꼭대기의 장관은 마치 장군이 칼을 찬 것 같고, 아름답기가 미녀가 쪽을 낀 것, 僧이 절을 하는 것, 신선이 춤을 추는 것,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봉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들이 물체의 모양을 안 한 것이 없어 속칭 오백장군골, 혹은 천불봉이라고 하고 일명 행도골이라고도 한다. 그 밑으로는 샘이 솟아 계곡을 이루어 길게 흘러가며 마르지 않는다. 골짜기는 넓고 평평하여 소나무가 질푸르러 하늘을 찌른다. 목장이 여기저기에 있고 비단같은 구름이 산에 두루 걸리어 있다. 옛날에는 자그만 사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있다. 혼자암이었던 폐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전하다. 대개 한라가 모두 석산이므로 산기슭도 장엄하지만 유독 이 한쪽면의 눈 쌓인 봉우리는 옥을 배열한 듯 마치 풍악의 모양과 같아 평판이 있고 성벽같아 또한 이채롭다.⁸¹⁾

백록담과 영곡에 대한 내용은 명승의 위치, 각 장소의 형상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한라산 꼭대기에 위치한 백록담과 영곡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절경이었으므로 작자가 본 것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사물에 빗대어 묘사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의 경우 자료Ⅲ-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潭의 북쪽 구석에 기우단이

80)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68~69쪽.

81)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위의 책, 1997, 69쪽.

있다.’하여 기후제를 지내는 곳이었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였고, ‘바람기운이 항상 싸늘하여…덧옷을 생각나게 한다.’며 기후를, ‘산열매는…맛은 달콤하고 또한 향이 있어 진짜 선과이다.’라 하여 식생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말미에 백발의 노인이 하얀 사슴을 타고 왔다가 사라져 백록담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설화를 덧붙여 알려지지 않은 한라산의 신비로움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설화는 임제의 『남명소승』에서도 전하는 백록담에 얽힌 대표적인 전설로 ‘하얀사슴’, ‘백발의 노인’ 등은 한라산의 신성함을 연상케 하는데,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사냥꾼이 하얀 사슴을 잡은 것, 김치의 「유한라산기」에서 하얀 사슴이 영주초를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것으로 보아 한라산은 신선이 사는 땅이라고 기록한 것 등 『남명소승』 이후의 유산기에서 반복하여 인용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Ⅲ-11) 天地淵(현재의 천제연) : 연은 대정 경계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양쪽 골짜기가 둥글게 휘어 사방의 벽이 병풍을 둘러쌌다. 주위에 여러 길로 오는 폭포수가 남쪽에서 모여 폭천을 이루고는 반석으로 빨리 흐르면서 낭떠러지로 바로 내리며, 무지개가 서고 포가 펼쳐지며 걸리는 게 벼락처럼 빠르고 우레소리 내며 빙빙 돌며 깊은 용추를 만들어낸다. 신룡이 산다하여 매번 가뭄이 닥칠 때마다 기우를 하면 곧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너편 바위사이에 몇 칸의 초가가 단풍 숲속에 은은히 비친다. 연의 서쪽에 과녁을 세웠는데 잠두여서 겨우 다닐 수 있는 화살 날아가는 길로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초인이 화살통을 지고 줄을 잡아다니며 왔다갔다한다. 절경인 경치는 거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황홀하게 영지만 보고도 아마 난생을 듣는 듯할 것이다. 대저 한라산에는 계곡이 매우 많으나 모두 건천이어서 길가는 사람은 물 마시기가 어렵다. 오직 양현의 세연이 길게 흐르며 모두가 빼어난 폭포를 이루고 있다. 가까운 것은 그 곳이 바다 밖의 절도이고 놀러 구경 가는 사람들이 없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⁸²⁾

Ⅲ-12) 翠屏潭 : 주성의 서문 밖 3리쯤에 대천이 있어 대독포로 흘러 들어간다. 포구 못 미쳐 용추가 있는데 물색이 깊고 검어 끝이 없다. 양 언덕은 비취빛 절벽으로 푸른 낭떠러지인데, 둘레 좌우에 암석이 병풍을 이뤄 기괴하여 늪기도 하고서 있기도 하다. 담의 형세는 서로 구부러지며 길어 수백 여 보나 되고 깊숙하면

82)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70쪽.

서 고요하고 요조하다.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포구와 바다사이에는 한 개의 띠를 이룬 자갈톱을 사이에 두고 조수가 통하기도 하고 혹은 막히기도 한다. 담의 서쪽은 누에머리 모양으로 나와 평평하면서 둥글게 대를 이루었는데 그 밑에 산의 암석으로 이어진 층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거대한 바위가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리고서 어지러이 널려있는 돌들 가운데 우뚝 서 있다. 형상이 용머리 같으므로 이름을 용두암이라 한다. 배에서 내려 대에 오르면 어부의 집들이 처마를 잇대었고 뒤에는 고깃배들이 노를 잇대었으며 앞바다에는 하늘이 온통 한 개에 물든다. 희미하고 망망한 바다 밖으로 놀러가 구경을 하는 것은 최고의 빼어난 경치라고 하겠다.⁸³⁾

Ⅲ-13) 山房 : 대정현의 동쪽 10리 거리에 외로운 산이 해변에 우뚝 솟아 있다. 전체가 하나의 돌로 되어 아주 기이하고 험하다. 앞면의 반허리에 한 개의 굴이 있어 자연히 석실을 이루어 마치 방안에 들어간 듯하다. 그 천장 바위사이에서 물이 새어나와 떨어지는데 통을 놓아두고 물방울을 하루 종일 받아 모으면 겨우 한 동이가 되는데 맛은 매우 맑고 상쾌하다. 전설에 아주 옛날 사냥꾼이 한라산에 올라가 활을 쏘아 하늘의 배 가까이에 이르자, 상제가 노하여 주봉을 꺾어 옮긴 것이 여기에 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 남쪽에 돌구멍이 있는데 이름을 암문이라 하여, 그 북쪽에 또 큰 구멍이 있는데 깊이를 잴 수 없다. 송악과 형제암이 앞바다에 점철하고 용두연대가 머리를 내민다. 왼쪽 기슭에 향훼와 자지가 두루 자라고, 산머리에는 도기가 사람들에게 배어들고 선풍이 길을 인도하는데, 어찌 높은 소나무가 여기에서 일찍부터 심호흡을 하여 경장영액을 아직까지 간직했다가 그렇게 스며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⁸⁴⁾

Ⅲ-14) 城山 : 정의현 동쪽 30리가 바로 수산소이다. 소에서 동북으로 5리쯤 가면 돌산이 큰 바다 가운데 현걸차게 솟아있다. 산위의 바위로 된 뿔들은 기이하다. 둘레 사면을 바라보면 마치 성가퀴 같아서 ‘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은 만 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많은 나무와 굴나무가 있어 그래서 과원이 되었고 겸하여 윗 봉우리에 봉수가 설치되어 있다. 이산의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마치 병입처럼 되어 있다. 여기를 지나는 곳에 산뿌리를 옆으로 잘라 성을 쌓았다. 안에는 우물물이 없으므로 성담 밑의 도랑을

83)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71~72쪽.

84)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위의 책, 1997, 70~71쪽.

파서 바깥에서 물을 깬다. 성에 들어가서 수 백 보에 진해당 옛터가 있는데, 이 경록이 목사로 있을 때 설진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어 있다. 대에서 위를 향해 산비탈을 따라 나무를 잡고 올라가는데 사람이 다녔던 자취를 통해야 맨 꼭대기에 도달한다. 밑으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세워서 동여매니 잔도가 되어 위에 까지 미쳐있다. 돌 끝을 따라 백 여보를 돌아가니 반석이 있어 대여섯 사람은 앉을 수 있는데 굽어보면 땅이 안 보인다. 또 바위굴이 있어 바다 밑으로 관통했는데, 그게 몇 천인이 될는지 모른다. 큰 파도와 거대한 물결이 떨어져 만리를 진동하면 흔들려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심신이 모두 떨어져 오래 머물 수가 없다.⁸⁵⁾

천지연·취병담·산방·성산에 대한 내용은 각각의 위치와 형상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연의 경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절경’이라는 감탄의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취병담의 경우에도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한 최고의 경치라고 찬양하고 있다. 산방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백록담과 마찬가지로 산방에 얽힌 전설을 소개하고 있고 성산에 대해서는 명칭의 유래, 옛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성산에 대한 감상을 과장 섞인 표현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로 자연경관에 대해 기록한 이 명승들은 함께 기록된 다른 명승들에 비해 표현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작자가 경승을 접한 느낌을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익태의 「탐라십경」은 조천관·별방소·명월소·서귀포 등의 방호소와 한라산의 백록담과 영곡·산방·취병담·성산·천지연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명승들을 십경으로 선택한 것은 남구만의 『함흥십경도』, 『북관십경도』 같은 십경도의 체제와 유사한 면을 보여주는데 함경도와 제주가 명승지와 함께 군사적 요충지와 유적지가 중요시되어 다른 지역의 십경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⁸⁶⁾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⁸⁷⁾

한편, 「탐라십경」의 발문 격인 『지영록』 중 「耽羅十景圖序」에서 이익태 목사는

85)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97, 67쪽.

86) 이보라, 앞의 논문, 2007, 78~79쪽.

87) 관동·관서 지역의 팔경이나 십경이 누정을 중심으로 명승을 정함에 반해 함경도와 제주도는 군사적 요충지나 유적지가 십경에 포함되어 있어 차별성을 보인다.

자신이 유명한 절경과 숨겨진 경치를 직접 찾아내어 십경을 정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명승을 묘사하는 표현이나 얽힌 설화에 있어서 이전의 임제의 『남명소승』이나 김상헌의 『남사록』과 유사한 표현을 차용하는 것으로 보아,⁸⁸⁾ 제주의 십경은 이익태 목사가 최초로 선정하였다기 보다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혹은 제주에서 목사들이 순력과정에서 관례처럼 거쳐 가는 곳을 모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주의 경관 중에서 내세울 만한 장소 십경을 가려내고 기록한 「탐라십경」은 문헌 기록상 최초로 제주의 명승을 집경하고 타 지역에 알리려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⁸⁹⁾ 물론 이전에도 1601년 청음 김상헌에 의해 5개월에 걸쳐 제주를 둘러보며 제주의 풍물을 상세히 기록한 『남사록』이 있었지만, 『남사록』은 견문록의 형태로 제주의 사회상에 집중 설명하고 있고 제주의 경승에 대한 집경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의 명승 집경 기록에 있어서는 『지영록』 내 「탐라십경」과 『탐라십경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야계는 유람문화가 유행하던 17세기의 조선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수 유람을 즐겼다. 그는 1663년 속리산을 시작으로 첫 외직인 함경도 고산찰방에 부임한 후 고산에서 돌아오면서 금강산을 유람(1673)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순천부사로 영남지역에 부임했을 당시에는 지리산을 유람(1680)했던 것으로 보아 부임지에서 틈틈이 산수 유람을 즐겼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治溪先生年譜』에 의하면 속리산·금강·두류산을 유람한 바 있고 『治溪遺稿』에서도 평양의 연광정과 부벽루, 관서지역의 성천 강선루 등이 언급되는 등 산천과 명승지를 찾아 즐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⁹⁰⁾

이익태는 서인을 이끌었던 송시열·김수항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김수항과는 시문에 화답하며 교류하였음이 확인된다. 김수항은 1664년 북도 시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함경도 관찰사인 민정중 외 지방관들과 합류하여 칠보산을 유람하며 지은 수창시에 칠보산 주변의 명승을 그린 실경산수화를 묶어 시화첩인 『北關酬唱錄』⁹¹⁾을 제작할 정도로 그림과 문학에 조예가 깊었다. 김수항과의 교류는 그의 셋

88) 고길선, 앞의 논문, 2013, 28~29쪽.

89) 노재현 외, 앞의 논문, 2009, 93쪽.

90) 이보라, 「제주목사 야계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와 후대에 미친 영향」, 『야계 이익태 목사 학술세미나』, 화신문화역사연구소, 2013, 44~45쪽.

91) 『북관수창록』은 모두 32첩으로 이 중 6면이 실경산수화인데 당시 도화서 화원인 한시각이 그림을 그렸으며 나머지는 수창시로 되어있다.

재 아들인 김창흡과의 교유로 대를 이어 이루어졌다.⁹²⁾

김창흡은 김창협과 더불어 農淵兄弟라 불리며 그 문하에 문예그룹을 두어 활발한 산수기행문학 창작활동을 보였다. 농연형제는 정통 노론의 학맥을 잇고 있지만 경험적인 인성이해, 개방적 학문관 및 현실적 대청론을 보여주는 변화된 세계인식의 관점을 가지고 명말청초에 간행된 산수유기집과 산수판화집의 유입 등을 비롯하여 학술과 문예를 폭넓게 흡수하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⁹³⁾ 농연형제의 집안에서는 선대로부터 『名山記』와 같은 중국 산수기행문학집을 애독하였고 평을 하였으며 이렇게 산수기행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주변 산수의 실경을 시와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산수 유람을 즐기며 많은 제화시를 남겼고 검재를 후원하는 등 진경산수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김창흡은 이익태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유했음이 『야계유고』를 통해 확인되는데⁹⁴⁾ 이들이 서로 산수를 읊은 시에 화답하거나 함께 유람을 했던 것으로 보아 이익태가 탐라의 십경을 집경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된 이면에 김수항과 김창흡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주목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

18세기 제주의 명승에 대한 기록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耽羅巡歷圖』는 순력의 기록화이다.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李衡祥이 제주 내의 관아와 성읍·군사 등의 시설과 지형 및 풍물에 대한 것을 화공 김남길을 시켜 그리게 한 것으로 당시 제주의 여러 가지 시각적 정보를 나타내는 화첩으로 꼽힌다.

양난 이후 피폐해진 지방 사회에 대한 파악과 전후 회복을 위해 18세기 들어서 국가에서 화사군관을 지방에 파견하였고 이들이 각 지역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순력의 기록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각 지역의 명승지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기록화는 왕이 직접 순력을 하지 않고도 한양에서 바로 그림을 통해 각 지역의 명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92) 이보라, 앞의 논문, 2013, 43~44쪽.

93)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문학과 기유도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6~49쪽.

94) 이보라, 위의 논문, 2013, 44쪽.

『탐라순력도』에서 명승과 관련한 도면을 살펴보면,⁹⁵⁾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城山觀日, 金寧觀窟, 正方探勝, 山房盃酌, 屏潭泛舟, 天淵射帳, 懸瀑射帳 등을 경승의 주제로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⁶⁾

<표 3> 『탐라순력도』⁹⁷⁾에 나타난 명승지



도면명	그림	내용
城山觀日		<p>성산봉에서 해 뜨는 장면을 보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p>
金寧觀窟		<p>김녕의 용암굴을 둘러보기 위해 햇불을 밝히고 가마를 타고 들어가 굴 안쪽을 관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p>

95) 『탐라순력도』에는 朝天操點, 別防操點, 西歸操點, 明月操點 등 이익태가 『탐라십경』에서 언급하였던 조천소, 별방소, 서귀포, 명월소를 나타내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형상이 『남환박물』에서 경승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그림을 찾아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승지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96) 신상범,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관지』, 『耽羅巡歷圖研究論叢』, 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186~195쪽.

97) 『탐라순력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도면명	그림	내용
<p>正方探勝</p>		<p>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구경하는 그림이다. 다른 배경을 최대한 배제하고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부각시켜 경승의 이미지를 나타낸다.</p>
<p>山房盃酌</p>		<p>산방굴에서 술을 마시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산방산을 중심으로 송악산, 형제도, 사계포, 감산, 연대, 군산, 용두가 그려졌다.</p>
<p>屏潭泛舟</p>		<p>취병담, 현재의 용연에서 뱃놀이하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p>

도면명	그림	내용
天淵射帳		천지연 폭포에서 활을 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懸瀑射帳		중문의 천제연 폭포에서 활을 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탐라순력도』는 주로 군사시설을 순력하며 그린 것이므로 명승지만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형상이 비슷한 시기에 저술한 『南宦博物』에서는 취병담, 용머리, 진모살, 협재바위, 김녕굴, 도근내, 무수내, 동무협, 고망난돌, 성산, 정모소, 천지소, 죽은천지소, 산방, 송오름을 명승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남환박물』을 바탕으로 『탐라순력도』에서 당시 명승으로 선택한 곳의 위치와 이유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Ⅲ-15) 城山 : 정의현성 북쪽 30리에 있고, 제주목성과는 120리이다. 소섬의 어룡굴과 마주 대하고 있다. 성의 높이는 3백여 길이나 되는데 전체가 층층이 우뚝

솟아 깎아지른 듯 큰 바다 가운데에 서 있다. 무릇 그곳은 한라산의 한 지점으로, 떨어져서 구름이 된 것이다. 한라산에서 동북쪽으로 해변에 이르기까지 작은 산등성이가 꿈틀꿈틀 이어지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5리쯤에서 갑자기 무더기져 솟아났다. 바깥 면 사방의 벽은 대패로 깎은 듯, 거울을 갈아 놓은 듯, 크게 우뚝 솟아서 새와 짐승도 통한 자취가 없다. 서쪽 바위에 立石이 있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성 같기도 하다. 모두 수 백 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기울어져 있다. 돌을 짊고 더위잡는 곳을 붙여서 겨우 한 가닥 길로 통하는데, 역시 걸어 나갈 수가 없다. 나무를 걸어 사닥다리 길을 만들고 빙빙 돌면서 수백 보를 가니 비로소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五更(새벽 4시경)이었다. 달은 서쪽 바다로 지고, 오직 땅이 희미하게 보이며 그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갑자기 동쪽에 점점 빛이 있더니 바다 빛이 점점 밝아졌다. 한 가닥 芙蓉이 용궁에서 솟아 나와 바다를 뛰어 올라 공중에 걸리더니 만상을 다 비추어 세상에 언제 어두운 일이 있었냐는 듯싶었다. 전에 누차 동해 및 동래 바다에서 보았던 것은 매번 그 안개에 가려서 유쾌하지 않았다. 이날은 가벼운 구름조차 사방에서 모두 걷히고 바다와 하늘에 티끌도 없었다. 내 몸이 몇 겹 파도가 洶湧하는 가운데 있어 마음 시원히 扶桑에서 갓 떠오르는 햇살을 보게 되니 한 조각 靈臺가 삼상한 듯 너른 듯하고, 羽化登仙하여도 거의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았다. 절벽을 붙들고 삼면을 굽어보니 모두 물바다였는데, 고래 같은 파도와 자라 같은 물결이 격렬하게 산자락에 부딪히고 있었고, 갈매기와 물소들이 바위 틈새를 오고 가는 것이 분분하여 마치 나방과 하루살이들이 움직이는 듯 하였으며, 보는 눈이 어쩔어쩔하고 다리와 심장이 두근거리며 떨렸다.⁹⁸⁾

Ⅲ-16) 金寧窟 : 金寧村 남쪽 5리에 있다. 넓이가 30척이고 높이는 5~6길이나 되며 깊이는 5리가량이다. 양쪽 곁이 온전한 돌인데 누대와 같기도 하고 벽과 같기도 하다. 천정 역시 활이나 무지개와 같이 둥글게 되어 있다. 햇불을 들고 들어가니 그 속에는 기운이 음습하고 모양도 기괴하다. 여기서도 역시 석종유가 난다.⁹⁹⁾

이형상이 『남환박물』에서 성산과 김녕굴에 대해 묘사한 것을 보면 앞에서 언

98)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77~79쪽.

99)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위의 책, 2009, 76쪽.

급하였던 경관을 묘사하는 방법 중 탐승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부각시키는 행위묘사의 방법을 주로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Ⅲ-15)의 성산에 대한 설명에서 ‘돌을 깎고 더위잡는 곳을 붙여서 겨우 한 가닥 길로 통하는데, 역시 걸어 나갈 수가 없다…빙빙 돌면서 수백 보를 가니 비로소 산꼭대기에 이르렀다.’며 성산을 오르는 과정을 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험한 길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가 뜨는 것을 본 작자의 감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자료Ⅲ-16)의 김녕굴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도 ‘햇불을 들고 들어가니…모양도 기괴하다.’라는 등의 탐승 행위를 직접적으로 쓴 것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장면을 서술하였다고 생각된다.

Ⅲ-17) 正方淵¹⁰⁰⁾ : 정의현성 서쪽 68리에 있다. 섬에 있는 산 모양이 모두 기울어진 평상 모양인데, 유독 이 산기슭은 심히 단정하다. 하나의 띠 모양의 푸른 절벽이 바다까지 이르러 끊어졌다. 높이가 수 십 길이다. 위에는 반송이 있고 밑에는 큰 물결이 이는 곳이다. 서쪽 바위에 80여 자나 되는 긴 폭포가 있어 바다로 쏟아지는데, 진실로 제1의 명승지라 할 수 있다.¹⁰¹⁾

Ⅲ-18) 山房 : 대정현성 동쪽 50리에 있다. 활처럼 굽혀진 한 개의 구름이 해안에 얹드려 서 있다. 높이가 5백 길 가량이고 둘레가 10리나 된다. 전체가 모두 돌이며 사면이 절벽으로 험하여 인적이 통하지 않고, 오직 동쪽에 한줄기 길이 있어 바위를 잡고서 오른다. 잡초가 다복하게 나 있으며 사슴과 멧돼지가 새끼를 친다. 산 남쪽 중앙에 석굴이 있는데 기울어진 바위 집과 같다. 물이 천정에서 점점 떨어져 내리는데 구유로써 이를 받는다. 맑고 차가워 물맛이 좋다. 옛날 스님이 그 속에 부처를 만들었다고 하여 이름을 굴 바위라 하였다. 그 남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름을 暗門이라 한다. 양쪽 돌이 자연히 쪼개어져 1자 가량 구멍이 뚫렸는데 깊이는 백 자 가량이고 길이도 50여 자에 이른다. 그 북쪽에 큰 구멍이 있는데 길이는 잴 수 없다. 그 이름을 彼生門이라 한다. 金自祥의 『山房記』에 말하기를, “돌기 와가 자연히 덮이어 장마에도 새지 않고, 돌자리가 자연히 바닥에 펼쳐져 들불에

100) 정방폭포가 떨어지는 소를 정모소라 하였으며 지금의 정방폭포는 正方瀑布가 아닌 政房瀑布라 표기하고 있다.

101)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앞의 책, 2009, 80쪽.

도 타지 않는다. 석벽이 자연히 섰으니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샘이 자연히 솟아오르니 길바닥 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남사록』에 말하기를, “세속에서 전하기를, 옛날에 산지기가 한라산에 올라서 활을 쏘았는데, 활 끝이 하늘의 배를 스쳐 지나갔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화를 내어 한라산 꼭대기를 꺾어서 여기에 옮겨 세웠다.”라고 하였다. 지금 구제기곳을 보면, 산기슭에서 이곳까지 30리 사이에 잡석들이 뒤섞여 있거나 바로 세워져 있어서 완전히 산을 굴린 모습이다. 그러므로 말 좋아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지어냈다고 하였다.¹⁰²⁾

Ⅲ-19) 翠屏潭(현재의 웅연) : 용소라고도 하는데, 제주목성 서쪽 땅 2리에 있다. 이는 漢川 하류이다. 양쪽 낭떠러지는 깎아지른 돌벽이 수 10길에 걸쳐 서 있다. 밑에는 푸른 못이 있는데 길이는 수 백 칸이고 넓이는 백 자나 되며 수심은 또한 수 길이다. 소 가운데는 숫돌이 많고 두충과 감자나무, 석류나무 등이 양쪽 언덕에 벌어져 자라고 있다. 뱃놀이하기에 매우 적합하다.¹⁰³⁾

Ⅲ-20) 天池淵 : 서귀진성 서북쪽에 있다. 깎아지른 봉우리들이 서로 안고 있는데, 활처럼 굽어져 있는 것이 두루 돌아 좌우에서 만나며, 화살이 오니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에 중기중기 꽃혀 있다. 왼쪽 어깨로 돌아보면 폭포가 걸려 있는데, 역시 길이는 정방폭포 규모에 다음간다.¹⁰⁴⁾

Ⅲ-21) 小天池淵(현재의 천제연)¹⁰⁵⁾ : 대정현성 동쪽 35리에 있다. 이곳은 색달이내 하류에 있다. 『남사록』에 말하기를, “바다 입구에서부터 좌우에는 돌 벽이 병풍처럼 에워싸며 굽어져 돌아 아름답다. 골 안의 나무들은 모두 겨울에도 푸르다. 석벽 위를 따라 몇 리를 지나면 한 가닥 가지 길을 통하여 더위잡으면서 내려간다. 바위와 골짜기가 광랑하여 대낮에도 음침하다. 바람을 감추고 비를 모아 귀신이 울부짖을 것 같고, 사람으로 하여금 추위 떨며 움츠리게 한다. 기이한 모습과 그윽하고 괴이한 느낌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폭포수의 상류는 한라산 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그 사이 5~60리를, 혹 평평하게 퍼져서 갈래갈래 흐르기도

102)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앞의 책, 2009, 82~84쪽.

103)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위의 책, 2009, 74쪽.

104)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위의 책, 2009, 80~81쪽.

105) 옛 문헌과 지도에 ‘천지연’과 ‘천제연’의 표기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나, 『남환박물』에서 천지소는 천지연(현재 서귀포소재지), 작은 천지소는 천제연(현재 중문소재지)을 말한다.

하고, 혹 함몰한 곳을 만나 못이 되기도 하다 이곳에 이르러 폭포로 걸리어서 우레 같은 소리를 내고 눈 같은 분말을 뿜어내니 몇 리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해와 달이 다니는 길의 흰 무지개가 하늘 솔에 굽어 마시는 듯하다. 경승은 실로 박연폭포와 비슷하나 폭포 물줄기의 높고 낮음과 동구를 들어오는 문의 넓고 좁음은 혹 서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다만 바다 밖에 감춰져 있어서 유람 장소로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경승을 아는 이 드물다.” 라고 하였다. 『지지』에 이르기를 “또한 빠뜨려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은 동쪽 바위에 초가삼간이 있어 사람이 살고 있다.¹⁰⁶⁾

『남환박물』에서의 명승에 대한 기록은 매우 사실적이다. 전체적으로 내용 구성이 각 명소의 위치를 먼저 언급하고 폭포, 산, 굴 등의 크기나 길이를 상세한 수치로 나타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다. 특히 자료Ⅲ-15) 성산에서의 ‘…겨우 한 가닥 길로 통하는데, 역시 걸어 나갈 수가 없다.’나 자료Ⅲ-18) 산방에서의 ‘물이 천정에서 점점 떨어져 내리는데…맑고 차가워 물맛이 좋다.’ 등의 기록은 그가 직접 체험을 하고 글을 썼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적 경관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 ‘감자나무, 석류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감귤나무 수백그루만 심어져 있다.’, ‘잡초가 다복하게 나 있으며 사슴과 멧돼지가 새끼를 친다.’ 등 그 지역의 생활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단서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경험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김상헌의 『南槎綠』을 비롯하여 임제의 『南溟小乘』, 김정의 『濟州風土錄』, 최부의 『漂海錄』, 『輿地勝覽』 등을 참고하여 직접 체험하거나 들은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⁰⁷⁾

한편, 이형상은 고향으로 돌아간 후 제주를 떠올리며 쓴 『瓶窩文集』에서 漢拏彩雲, 禾北靄景, 金寧村樹, 坪垞渚烟, 魚燈晚帆, 牛島曙靄, 朝天春浪, 細花霜月을 「瀛州八景」¹⁰⁸⁾이라 하였다. 彩雲, 渚烟, 晚帆, 曙靄, 春浪, 霜月 등의 표제어는 시

106)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앞의 책, 2009, 81~82쪽.

107)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위의 책, 2009, 12쪽.

108) 이형상은 한라산의 여러 빛깔의 고운 구름이라는 의미의 ‘한라채운’, 화북의 맑게 갠 모습을 일컫는 ‘화북제경’, 김녕 마을의 나무를 가리키는 ‘김녕촌수’, 평대의 물안개라는 의미의 ‘평대저연’, 어등의 저녁 뚝배라는 의미의 ‘어등만뻬’, 우도의 새벽 아지랑이를 일컫는 ‘우도서애’, 조천의 봄 물결을 일컫는 ‘조천춘랑’, 세화의 달과 서리라는 의미의 ‘세화상월’ 을 영주관경으로 꼽았다(백종진, 「영주십경, 그 뿌리를 찾아서」, 『수필시대』 제10권, 문예운동사, 2015, 170쪽).

간, 계절, 경물을 말하며, 이는 이형상의 「영주팔경」이 실제 지명 자체로 십경을 표제한 이익태의 「탐라십경」과는 다르게 앞에 두 글자는 장소명, 뒤에 두 글자는 시간, 계절, 경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상팔경의 사언절구체 형식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⁰⁹⁾ 그러나 그의 팔경은 漢拏彩雲과 魚燈晚帆을 제외하고는 동북쪽에 치우친 명승의 선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¹¹⁰⁾

제주는 원래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이었지만 거리상의 이유로 당시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게 순력 임무가 주어졌다. 이형상 목사는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동래부사·경주부윤 등 주로 외직에 근무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200여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중 지지분야를 보면 강화에 머물며 강화의 역사 문물, 군사적 대비를 기술한 『江都誌』, 일본에 관한 지리지인 『東耳刪略』 등이 있다.¹¹¹⁾ 그는 학문적으로 정통 성리학을 추구하면서도 이전부터 상대주의적인 학문관을 갖고 있던 남인계열의 실학자들과 교류가 잦았고 그 영향으로 역사, 지리, 예악, 천문 등의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그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서양 선교사인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인 「坤與萬國全圖」를 열람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¹¹²⁾ 또한 이형상은 1701년 3월부터 1703년 봄까지 제주목사직에 있으면서 사위인 공재 윤두서의 부탁을 받아 제주도에 관한 지리지 『남환박물』을 저술하는 등 제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풍부한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¹¹³⁾ 더불어 그가 제주에 있을 때에 안남에서 표류하여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외국 사정을 듣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외국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형상의 사위인 윤두서는 숙종 대 남인의 핵심 가문이었던 해남 윤 씨 집안 사람으로 오랜 동안 서인에게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에 이영창 옥사에 형제들과 자신이 무고를 당한 후, 벼슬길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자신이 관심을 두었던 학문연구와 예술에 매진했다.¹¹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엽 경 남인과 소론

109) 노재현 외, 앞의 논문, 2009, 95쪽.

110)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58쪽.

111)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제3집,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45쪽.

112)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10, 14쪽.

113) 윤민용, 위의 논문, 2010, 13~18쪽.

114) 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38~39쪽.

은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학문, 예술관을 모색하고 있었기에 남인인 윤두서와 소론계인 이형상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인과 사위라는 인척 관계를 통해 서로 교류가 있었다. 공재와 이형상은 추구하는 학문이 상당히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예학에 관심이 많아 예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었다.¹¹⁵⁾ 또한 윤두서는 학문적 관심이 다양하여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에게 제주의 역사, 고적, 승경, 풍속, 산물 등 이모저모를 듣고자 박물지의 저술을 부탁하며 제주도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윤두서의 학문적 관심은 이형상이 제주의 다양한 분야를 기록으로 남긴 박물지인 『남환박물』을 저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3. 매계 이한우의 명승 인식과 영향

영주십경의 소표제와 차례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리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으며, 매계 李漢雨¹¹⁶⁾의 「瀛州十景時」가 시발점이 되었다. 매계는 제주의 문인으로 타지에서 시험에 낙방하는 등의 삶의 실패를 겪었으나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에서 자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제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梅溪의 시는 고향을 제재로 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대과를 위해 한양에서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던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제주로 돌아온 후에는 관직에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의 합일을 하고자 자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¹¹⁷⁾ 이한우는 제주인으로서 직접 느낀 제주의 열 가지 경치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제주뿐만 아니라 타지의 문인들이 그의 시에 화운함으로써 매계의 영주십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¹¹⁸⁾

115) 이내옥, 앞의 책, 2003, 51~52쪽.

116) 매계 이한우(1818~1881)는 이름이 漢震이었는데 족보를 만들 때 御諱하는 바가 있어 漢雨로 고쳤다. 할아버지 성훈과 아버지 친구가 모두 향리에서 훈학하였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 학문을 하였다. 추사 김정희가 대정에 있을 때 가르침을 받았는데 목사 목인배가 매계의 시를 칭찬하는 등 그를 알아주는 이가 많았고 안달삼, 김희정, 강우진, 신재지 등의 제자들을 양성했다. 이한우가 직접 쓴 『功令文集』1권과 『輓詞冊』1권이 있고 편자 미상인 『매계선생문집』1권 등 시집이 여러 종류 있다(오문복, 『영주십경시집』, 제주문화, 2004, 14쪽).

117) 손기범, 앞의 논문, 2009, 102~103쪽.

〈표 4〉 매계의 「영주십경시」와 내용¹¹⁹⁾

소표제	내용	해석
성산출일	山立東頭不夜城 扶桑曉色乍陰晴 紅雲海上三竿動 煙翠人間九點生 ---후략---	동쪽 머리에 서 있는 산이 불야성과 같음은 새벽 빛으로 해뜨는 곳이 잠깐 어둠이 걷힌 것 바다 위엔 붉은 구름 늦은 아침까지 움직이고 사람 사는 마을에는 아침 깃는 푸른 연기 점점
사봉낙조	誰把紅紗繞碧峰 斜陽頃刻幻形容 蜃樓變態翻黃鶴 鯨窟浮光戲赤龍 ---후략---	누가 붉은 비단을 푸른 봉우리에 둘렀는고 잠깐 해 지는 사이에 바뀌는 허깨비 같은 모습들 신기루처럼 변하는 자태 황학이 나는 듯 고래굴에 뜬 빛은 붉은 용이 장난치는 듯
영구춘화	兩岸春風挾百花 花間一徑線如斜 天晴四月飛紅雪 地近三清暎紫霞 ---후략---	양쪽 언덕 봄 바람에 온갖 꽃들 끼어 있고 꽃 사이로 비껴 있는 실 같은 오솔길 맑은 하늘 초여름인데 붉은 꽃눈 휘날리고 선계에 가까운 땅 채색 아지랑이 비쳤다
정방하폭	急瀑雷聲破正房 炎雲倒瀉紫煙光 雪飛三伏青山冷 虹掛半空白日長 ---후략---	거센 폭포 소리 정모식물을 깨치고 타는 구름 쏟아 부은듯 자주빛 연기 삼복인데 눈이 날리어 청산이 서늘하고 긴긴 여름날 무지개는 허공에 걸려있네
굴림추색	黃橘家家自作林 楊洲秋色洞庭深 千頭掛月層層玉 萬顆含霜箇箇金 ---후략---	집집마다 누런 귤 저절로 숲을 이루니 동정호 가의 양주인 듯 가을빛이 깊었네 천 갈래 가지 끝엔 달과 같은 옥덩이 서리 머금은 여러 덩이 낱알이 황금알
녹담만설	天藏晚雪護澄潭 白玉崢嶸碧玉涵 出洞朝雲無影吐 穿林曉月有情含 ---후략---	하늘이 늦도록 눈을 저장하여 맑은 못을 지키게 하니 흰 구슬은 우뚝두뚝, 푸른 구슬은 물에 잠겼다 아침 구름은 꼴짜기를 나오며 그림자를 토하지 않고 새벽달은 숲을 뚫고 다정하게 떠오른다.
영실기암	一室煙霞五百巖 奇形怪態總非凡 僧依寶塔看雲杖 仙揖瑤臺舞月衫 ---후략---	연하 덮인 한 골자기 오백개 바위 기묘 괴이하여 모두 다 예사모습 아닐세 스님이 절 탑에 기대어 운장을 바라는 듯 선인이 요대를 향하여 월삼으로 춤을 추는 듯

118) 김치완, 「영주십경으로 본 매계 이한우의 선경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제59권, 대동철학회, 2012, 149쪽.

119) 오문복, 앞의 책, 2004, 15~24쪽.

소표제	내용	해석
산방굴사	化工多巧斲青山 洞設僧門雲掩關 鍊石乾坤包上下 孔針世界穿中間 ---후략---	조물주가 재주 많아 푸른 산을 깎아내어 굴 속에 절을 짓고 구름으로 문빗장 걸었네 다듬은 돌로 천정과 바닥 위 아래를 감싸니 침으로 뚫은 듯 만 세상이 그 가운데 생겨났네
산포조어	兩兩輕槎出釣魚 海天一色鏡中虛 落花飛絮春和後 綠水青山雨歇初 何意煙雲隨往返 多情鷗鷺亡親疎 ---후략---	짜지어 고기잡이 나가는 가벼운 때배 바다 하늘 같은 빛 텅빈 물 위에 꽃지고 버들꽃 날리는 따스한 봄날 파란 물 푸르른 산 비 내리다 개일 때 무슨 뜻인지 연기와 구름 어울려가고 오고 다정한 갈매기 백로 친소를 잊었구나
고수목마	雲錦裁來各色駒 青蚪紫燕又晨晷 桃花絢雨行行蝶 芳草斜陽渴渴鳥 ---후략---	구름 비단 마련질한 듯 각색의 망아지들 청규마 자연마 또 신부마일세 복사꽃, 가는비에 날아드는 나비같은 향기로운 풀, 지는 해에 목마른 오추마

매계는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를 십경으로 꼽는다. 이와 같은 순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가는 것과 오는 것(出日, 落照), 멈춰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春花, 夏瀑),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秋色, 晚雪), 땅 밖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奇巖, 窟寺), 산 경치와 바다 경치(釣魚, 牧馬)를 대비시켜 십경의 제목들이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¹²⁰⁾이 있는 반면 앞서는 공간적 이미지로 이해한 것이고, 하루(出日, 落照)-춘하추동(春花, 夏瀑, 秋色, 晚雪)-영원(奇巖, 窟寺)-현실(釣魚, 牧馬) 등 시간적 이미지의 변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¹²¹⁾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일월(出日, 落照), 사시(春花, 夏瀑, 秋色, 晚雪), 제주의 경치(奇巖, 窟寺), 제주의 풍물(釣魚, 牧馬)로 이해하기도 한다.¹²²⁾

120) 손기범, 앞의 논문, 2009, 104쪽.

121) 김치완, 앞의 논문, 2012, 149쪽.

122) 노재현 외, 앞의 논문, 2007, 52~53쪽.

Ⅲ-22) 시로써 십경을 그렸지만 의심 받을 곳 많을 듯하다. / 다만 평범한 것을 그렸고 기이한 것은 못 그렸으니 / 기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 어려운 곳에 있으므로 / 사람들이 칭찬하는 유별난 경치를 시로 그려야 하는데¹²³⁾

이한우는 「영주십경시」 말미에 덧붙여 본인의 임의로 십경을 선정한 것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을 포함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제주에 있는 기이한 풍광을 알리고 싶어 하며 사람들이 칭찬하는 더 뛰어난 경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인들은 거주지 주변의 산수를 팔경, 십경 등으로 선별하고 제재로 삼아, 시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각지의 산수와 지리를 재조명함으로써 지방 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에 더하여, 향촌의 산수를 유람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서 지역의 산수와 관련한 지리·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게 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매계가 제주의 명승에 관심을 갖고 작품화하기까지에는 1840년(헌종 7)부터 1848년(헌종 15)의 7년 동안 제주에 유배 왔던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인다. 『梅溪先生文集』에 따르면 이한우는 김정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¹²⁴⁾ ‘추사를 좇아 배우는 이들이 많았으나 유독 이한우를 대우함이 특이했다’는 말처럼 관계가 남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¹²⁵⁾ 김정희는 제주에 있는 동안 동국진체라는 추사체를 완성하였고 고증학·금석학·역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정희와의 교유는 이한우에게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후에 「영주십경시」를 품제 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123) 오문복, 앞의 책, 2004, 25쪽.

124) 김상조, 『梅溪先生文集』, 154쪽, 「梅溪先生行狀 : 秋史金正喜謫居大靜 公往從問業 秋史大加獎許 從遊多數 而待公獨異」(김새미오, 앞의 논문, 1999, 59쪽).

125) 김새미오, 위의 논문, 1999, 59~60쪽.

〈표 5〉 19세기 문인들의 「영주십경시」¹²⁶⁾

제영자	생몰 년도	소표제	題瀛洲十景後
난곡 김양수 ¹²⁷⁾	1828 ~ 1887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영주산 두루 돌아보고 오랜 의문 풀었네/가장 아름다운 곳 또한 신 기하기도/모름지기 산을 오르며 체 력 낭비할게 아니라/그대의 집에서 열 수의 시를 보면 되겠구려
연파 김창현 ¹²⁸⁾	1827 ~ 1875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영주의 십경에 의심할 곳이 많아/ 사람들이 기이하다는 곳 모두 기이 하지는 않아/다행히 매계노인의 뛰 어난 시귀 얻어서/이에 화답하러 억지로 시를 지어보네
울하 이용식 ¹²⁹⁾	1833 ~ 1895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영주의 열 곳 빼어난 경치 한번에 깨쳐 알았네/보는 것마다 괴이하고 또 기이하기도/다만 고향가서 자랑 할 날을 기다려지는데/시로 표현함 에 와전되고 빼어졌는지 두렵다오
해은 김희정 ¹³⁰⁾	1844 ~ 1916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우리 고을 십경은 의심할게 없으라 /날날이 살펴보면 빼어나고 기이한 경치/찾아가 헤아려보면 마치 그림 자를 잡는 것 같으니/ 촌사람 시슴 씨 졸렬함을 스스로 비웃을 수밖에
양암 류담 ¹³¹⁾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옛날 신선 사는 곳이란 말 듣고 과 연 그런가했지/이제 신선 사는 섬 을 구경하니 최고의 절승일세/신선 사는 세계를 만세에 전하려 하니/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워 시로 읊어 보았다네
영운 김계두 ¹³²⁾	순조 년간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내가 일찍이 보지 않았으므로 의심 이 생기며/항차 시 짓는 재능마저 도 기이한 게 없습니다/그 가운데 곳곳의 참모습 알고 싶어서/다른 날 올라와서 다시 시를 써야지요
조남와 ¹³³⁾	순조 ~ 고종대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126) 오문복, 앞의 책, 2004, 27~184쪽.

제영자	생몰 년도	소표제	題瀛洲十景後
석호 고영혼 ¹³⁴⁾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십경의 시 속에서 한 가지 의심 풀 어냈네/보이는 것마다 글자마다 모 두 다 기이해라/일찍이 기이한 경 치 알았으나 시로 쓰기 어려웠는데 /지금 지어진 시를 보니 시 속에 그 경치가 있네
남곡 고영하 ¹³⁵⁾	1888 ~?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화암 신흥석 ¹³⁶⁾	1850~ 1920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낙천 김희두 ¹³⁷⁾	1864~ 1904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혁암 김형식 ¹³⁸⁾	1886~ 1927	城山出日, 紗峰落照, 瀛邱春花, 正房夏瀑, 橘林秋色, 鹿潭晚雪, 靈室奇巖, 山房窟寺, 山浦釣魚, 古藪牧馬	

- 127) 본관은 경주이며 진사 치용의 아들이다. 고종 11년에 사마시에 뽑혔고 시와 문장을 잘 지었다고 한다. 한 때 영문의 막료가 된 일이 있어 방선문에 각자가 남아있다.
- 128) 강진 박천 출신으로 제주에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자세한 행적이 남아있지 않다. 제주의 산천과 풍속을 내용으로 한 『탐라죽지사』를 지었으며, 『제가음영집』에 시 여러 편이 전해지고 있다.
- 129) 전남 강진 출신으로 이한우와 「영주십경시」를 화운하였고 제주에 많은 시를 남겼으나 거의 일실되어 20여 수가 남아있다. 매계의 교우가 두터워 증답시가 여러 편 남아있다.
- 130) 면암 최익현의 제자로 조천에 은거하여 평생 훈학에 종사하며 많은 제자를 길렀다.
- 131) 평양출신으로 매계의 십경시에 차운하였고 저지에 기거하다 제주에서 생을 마쳤다.
- 132) 본관이 하동인지 출신이 하동인지 확실하지 않다. 선홀에 살면서 많은 제자를 육성하였고 『제가음영집』의 「영주십경시」에는 이름이 성돈이라 기록되어 있다.
- 133) 성산읍 고성리에 살면서 신흥, 난산 등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훈학하였다.
- 134) 신촌에서 태어나 매계의 문하에서 수업한 듯하다. 승보시에 급제하였지만 출사를 단념하고 많은 제자를 육성하는 데 힘썼다. 『제가음영집』에 여러 편의 시가 전해진다.
- 135) 제주시 명도암에서 태어나 儒雅로 명망이 있었다.
- 136) 당대의 선학인 유학 김용징에게 수업했고 전간재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 화북포에 살았고 후대에 의해 『화암시집』이 전한다.
- 137) 관찰부 주사를 지냈고 『낙천집』이 있다.
- 138) 제주목 주사를 지냈다. 매하 최영년과 교유가 깊어 매하가 발행한 『조선문예』에 많은 시문이 등재되어 있다.

매계가 십경을 집경한 이후 도내·외의 문인들이 그의 「영주십경시」에 차운하여 제주의 명승에 품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영주십경시」를 창작한 19세기의 도내·외 문인들 대부분은 매계의 십경시에 차운하여 「영주십경시」를 창작하였으므로 열 가지 소표제는 동일하다. 특히 율하 이용식은 매계 이한우와 교우가 깊어 증답시가 여러 편 남아있는데 이 중 이한우의 「영주십경시」에 화운하였고, 석호 고영혼의 경우 매계의 문하에서 수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주십경시」의 말미에 쓴 글들을 보면, 난곡 김양수가 ‘不須枉作登臨費 看取君家十首詩’라 하여 산을 오르며 힘을 쓸 필요 없이 이한우의 열 수를 보면 되겠다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연파 김창현이 매계의 뛰어난 시 구절을 얻어 시를 짓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한우는 그와의 직접적인 교류로 인한 영향 말고도, 그의 작품을 통해서 19세기 「영주십경시」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IV. 제주명승의 특징과 변화

1. 제주명승 인식의 특징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명승 기록에는 명산들을 유람하여 기록한 유산기를 비롯하여 기행사경도, 그리고 각 지방의 명승을 팔경, 십경, 십이경 등으로 집경하여 시·서·화로 제작한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분석하여 다른 지역의 명승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제주의 명승 기록과 비교해보고 그것들과는 다른 특징적인 면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유산기를 살펴보면, 유산기 작자들의 산에 대한 인식은 개별 작품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산별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이 있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절경이라 유명하여 산수 유람의 기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 다수의 유산기가 창작되었다. 지리산의 경우 역사적 자취를 담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며 수도하는 도량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어 있다. 청량산은 선대명현의 행적을 찾기 위해 답사하는 목적으로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영남 사람들에게 이념적 지향이 닿아있는 수양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다른 명산들은 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남긴 족적을 따라 후인들이 그 유산을 좇는 ‘사람’ 중심의 유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반면에, 한라산은 험준한 지형적 조건으로 사람들이 쉽게 등람할 수 없는 공간이었으므로 ‘신선의 산’이라 인식되어 있었다.

제주의 한라산은 산신제를 지내기 위하여 또는 개인적인 유람의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라산은 영주산이라 불리며 산신의 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유산기에 남겨진 기록들에서도 백록을 탄 신선이야기, 영주산으로 어린아이 5백 명을 보내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해오도록 한 이야기 등 관련 설화들이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섬에 있는 산으로 육지와 고립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

다는 점, 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등 외부세계에 신비로운 영산으로 인식되어 한라산을 등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한라산을 등반하고 유산기를 기록했던 작자는 대부분이 제주에 부임한 관원이거나 제주로 유배 온 지식인이 같은 외지인이었다. 이는 청량산이나 지리산 같은 명산의 유산기 작자들이 대개 그 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명승기록이 제작된 경위 면에서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서와 관북, 관동 지역은 위치상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며 경제기반이 열악했으므로 문화적으로 낙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명승 기록은 타지 출신의 문인관료들의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람을 가기에 근거리는 아니었으므로 그 경위가 단순히 유람만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지방관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중앙에서 좌천되어 가는 경로에 거쳐 가는 등 타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찰사는 관내를 순회하고 감독하는 순력이 본연의 임무였으므로 지역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었고 순력의 기록을 남겨야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공적 혹은 사적으로 명승의 기록을 남기는 데 용이하였다.

제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수 유람의 목적으로 제주를 찾았다기보다는 이익태나 이형상의 경우처럼 목사들이 순력을 겸하여 관습처럼 알려진 명승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상을 보인다. 제주는 당시 군마공급지이면서 동시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방어지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도가 큰 지역이었고, 유배지이기도 했으므로 영토의 끝자락에 있는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지역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때문에 매년 봄과 가을에 도내를 순회하며 고을의 폐단을 통제하고 군사방어 상태를 살피는 순력이 중요시되었고, 목사들은 순력을 행하면서 제주의 자연 경관을 접할 수 있었다.

문인들은 지인이 관동지역 같은 외지로 부임하게 되면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직에 있음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또는 험난한 곳이라 일부러 가지 못하는 곳을 유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부러움을 표현하고 축하를 했으며, 와유로라

도 함께 향유하고자 하여 유기를 남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IV-1) 潘南 朴公이 少宗伯(예조 참판)으로 있다가 강원도 관찰사의 명을 拜受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객에게 말하기를, “박공이 이제야 비로소 기막힌 유람을 하게 되었구나.” 하였다.¹³⁹⁾

IV-2) 아스라한 바다 위의 금강산은 / 천 점의 옥봉이 구름 사이 솟았다네 / 학문을 탐구하는 이날 선분이 없어 / 그대의 행차 바라보며 따르지 못함 탄식하네 / 평생에 혼과 꿈이 구름 산에 감도는데 / 티끌세상 벼슬살이 공연히 부끄럽네 / 대관령 밖 신선 유람 그대만 할 건가 / 훗날 돌길을 나도 오를 만하리 / 140)

IV-3) 신나겠네 그대는 표현히 사무실 박차고 나와 / 관동 지방 명승지로 부임 하게 되었으니…금강산 정상 올라서면 온 누리 한눈에 들어오고 / 해금강 파도 소리 비로봉까지 들릴텐데 / 머리 둘러 인간 세상 내려다보면 / 눈에 놀이 끝도 없이 먼지 속에 묻혔으리 / 그대처럼 선풍도골 타고나지 않았으면 / 어떻게 벼슬길에 신선굴을 얻으리오 / 그대 보내려니 불현듯 떠나고 싶은 마음 / 어떻게 신선 옷 빌려 함께 날 수 없을거나/141)

IV-4) 按察하는 여가에 필시 명승지를 살살이 찾아 구경하고 시상을 가다듬어 시를 읊을 터이니 예전에 내가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였던 것들을 일일이 수습하여 돌아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가슴을 씻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평생의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¹⁴²⁾

관동지방은 명산인 금강산이 있어 예로부터 명승지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방관들이 보임지를 순회하면서 유람을 행하였고, 자료IV-1)에서 자료IV-4)와

139) 최립, 『簡易集』 卷3, 117쪽, 「送朴子龍公江原監司序 : 潘南朴公由少宗伯拜觀察江原之命 豈聞之喜謂客曰 朴公始成奇遊矣」.

140) 기대승, 『高峯集』續集 卷1, 242쪽, 「送景肅出按關東 : 縹緲金剛海上山 玉峯千點倚雲間 窮探此日孤仙分 悵望君行歎未攀 平生魂夢繞雲山 宦跡空慙塵土間 嶺外仙遊君豈擅 異時丹磴尙堪攀」.

141) 장유, 『谿谷集』 卷26, 430쪽, 「送關東方伯金友古 : 喜君飄然辭直廬 按節關東名勝區…金剛頂上攬八垓 海濤直撼毗盧臺 回頭下瞰人間世 無限蟻蠓埋黃埃 不是君身有仙骨 宦遊那得神仙窟 送君不覺心飛揚 安得借君霞佩共翱翔」.

142) 이행, 『容齋集』 卷9, 29쪽, 「贈閱者叟(壽千) 觀察嶺東序 : 按察之暇 必將窮探而冥搜 苦思而耽詠 向之僕所願見而未得者 一一收拾而還 使得寓目 一作臥遊 而盪胸 則平生之願 可以賞矣 然後以畢吾言 耆叟其遲之」.

같이 외관적으로 나가는 지인들에게 전별의 뜻으로 써준 글들에서도 작별의 아쉬움보다는 유람의 기회를 갖게 됨을 축하하는 의도가 자주 보인다. 그러나 제주 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명승지는 아니었다. 때문에 제주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형상에게 사위인 윤두서가 『남환박물』의 제작을 부탁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제주라는 섬의 풍토나 명승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IV-5) 尹孝彦이 편지로 탐라의 고적에 대해 묻고 또 이르기를 널리 색다른 것을 듣고자 하니, 남환박물 13,850여 인을 써서 주다.¹⁴³⁾

다음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제작배경의 특징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 함경감사 남구만과 제주목사 이익태, 이형상의 명승 기록행위와 그들의 관계에서 유추해보겠다.

관북지역은 남구만이 「北關十景圖記」와 「咸興十景圖記」를 남긴 17세기 후반에 와서야 시문과 산수화로 다루어지면서 그 지역의 명승이 알려졌다. 남구만은 1674년 함경감사로 재직하며 순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흥십경¹⁴⁴⁾과 북관십경¹⁴⁵⁾을 각각 선정하여 기문을 쓰고 실경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임기를 마치고 상경한 후에도 지인들에게 명승도를 선물함으로써 함경도의 명승이 널리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17세기 후반부터 화면 상부에 남구만의 기문을 써넣은 관북명승도가 꾸준히 제작되었을 정도로 함경도 실경산수화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⁴⁶⁾

함경도의 대표적인 십경을 실경도로 제작한 남구만의 『北關十景圖』와 『咸興十景圖』는 부임 후 순력하며 십경을 선택하고 집경하여 화공에게 그리게 한 점, 위쪽에 여백을 두어 사적을 서술하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든 점, 십경에 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 놓은 점, 십경도 제작 이후 지속적으로

143) 이형상, 『南宦博物』, 「…孝彦書問耽羅古蹟 且曰 作南宦博物一萬三千八百五十餘言書贈…」.

144) 남구만의 함흥십경은 본궁, 제성단, 격구정, 광포, 지락정, 낙민루, 일우암, 구경대, 백악폭포, 금수굴 등 부성 내외의 자연경관과 명승고적을 포괄하고 있다.

145) 남구만의 북관십경은 안변의 학포, 국도, 석왕사, 정평의 도안사, 감산의 폐궁정, 길주의 성진진, 명천의 필보산, 경성의 창렬사, 경원의 용당, 경흥의 무이보로 구성되었다.

146)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242~244쪽.

로 묘사되는 집경의 틀이 되었다는 점 등 제작배경이나 구성 등에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와 유사점이 보인다.



〈그림 1〉 『함흥내외십경도』의 「지락정」¹⁴⁷⁾ 〈그림 2〉 『탐라십경도』의 「명월소」¹⁴⁸⁾

남구만의 『북관십경도』와 『함흥십경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이를 저본으로 하여 후대의 화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咸興內外十景圖』 〈그림 1〉 를 보면 화면 상단에 지역의 역사나 유래를 기술하고 화면 하단에 풍광을 그려 넣는 형식상의 특징을 보인다.¹⁴⁹⁾ 마찬가지로 이익태가 17세기에 제작한 『탐라십경도』는 현존하지 않지만 이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료되는 『탐라십경도』 〈그림 2〉 는 『함흥내외십경도』와 상당히 유사한 형식을 띠는 것으로 보아, 남구만의 『북관십경도』와 『함흥십경도』에게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가 영향을 받았으며 후대의 화가들에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구만의 함흥십경·북관십경, 그리고 이익태의 탐라십경에서 가장 특이점이면서 공통적인 부분은 팔경이나 십경을 집경함에 있어서 관동·관서지역에서는 집

147) 『함흥내외십경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8) 『탐라십경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49) 윤민용, 앞의 논문, 2010, 28~36쪽.

경할 제재를 대부분 누정을 중심으로 그 주변풍경과 개인적 심상을 선택 하는 것에 반해, 남구만이 재직하던 함경도와 이익태가 재직하던 제주의 십경은 명승지와 함께 군사적인 요충지와 유적지가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탐라십경에는 조천관·별방소·명월소 등 군사지로서 방어목적에 따르는 기능을 강조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포함되었으며, 함흥십경에는 함흥이 태조가 왕업을 일으킨 성지임을 강조하며 本宮·祭星壇·擊毬亭 같이 이성계의 행적이 전하는 왕실사적이 포함되었고, 북관십경에는 城津鎭이 관방의 요해처라 하여 십경에 포함되었다. 이는 앞서 순력의 이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주는 당시 군마공급지이면서 동시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방어지로서 지정학적으로 중요도가 큰 지역이었고, 함경도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북방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세간의 관심 밖에 있던 변방이었기 때문에 이익태나 남구만 모두 자신들이 부임한 지역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야함을 강조하고자 십경의 제재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들이 명승이라 함을 단순히 뛰어난 풍경만 지칭한다기 보다는 역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함경도와 제주도 각각의 ‘십경’에서 어떻게 유사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리적 특성상 외지에 부임된 관리로서의 순력의 임무로 인해 생각하게 된 바가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남구만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익태도 함경도 고산찰방과 고산찰방안현 등 교양관으로 관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익태가 관직생활을 하는 중에 남구만의 십경도를 보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¹⁵⁰⁾

『북관십경도』와 『함흥십경도』는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도 공통점이 있다. 양난을 겪고 난 후 문인들 사이에서는 북방의 지리와 방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남구만은 관북지역의 방어 전략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였다. 그는 북방 경영을 하는 행정가이자 지리학자로서 회화지도를 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군현의 수령은 지역의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지도를 그려 활용하였는데 조선후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따르면 수령으로 취임하면 고을의 지도를

150) 이보라, 앞의 논문, 2007, 79~80쪽.

작성해야 하며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지방관에게 관할지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라 하였다. 『함흥내외십경도』를 통해 유추해 보아도 남구만은 『북관십경도』와 『함흥십경도』를 제작할 때, 지리적 관심으로 현지의 지형지물과 지역의 역사, 경물, 군사·행정시설의 중요성을 기록하는 등 통치에 관련한 실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북방지역의 군사적·입지적 중요성,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자신의 행정력과 북방 정책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702년 제주목사에 임명된 이형상이 제작한 『탐라순력도』는 화첩의 처음에 「한라장축」이라는 정교한 제주도 지도를 첨부하고, 다음으로 각 화첩에 지역의 승경을 배경으로 순력의 장면을 그렸으며, 각각 지명과 관련 정보를 써서 군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은 그 지역에 일정한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이형상은 개인적으로는 남구만과 마찬가지로 역사·지리 등의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더해 외국에 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제주도의 지도를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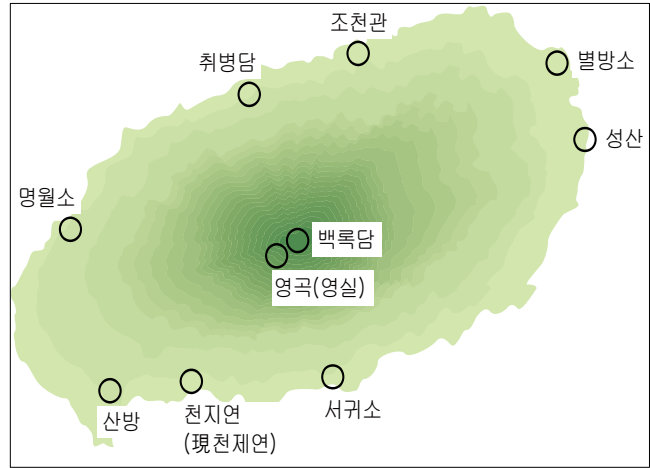
팔경과 십경 제재의 선택 면에서 특징적인 점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한국의 팔경으로 언급되는 관동팔경을 예시로 보았을 때, 제시하는 사람이 보고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박상이 제시하였던 관동팔경은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팔경으로 품제하였다. 그러나 이황 이후 현재도 통용되고 있는 팔경의 품제는 총석정, 삼일포, 청간정, 낙산사, 경포대, 죽서루, 망양정, 월송정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다.

제주의 경우 십경의 품제가 대체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승이 선택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림 4>에서 탐라십경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확인되는 관동팔경의 위치선정과는 달리, 이익태의 경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지역에 십경이 편재하지 않도록 다양한 성격의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 요충지의 경우에도 관방으로서의 중요도보다는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동서남북에 위치한 4진(별방소, 명월소, 서귀소, 조천관)을 십경으로 선정한 점에서도 명승을 균형적으로 집경하고자 한 이익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151)



〈그림 3〉 관동팔경의 위치



〈그림 4〉 탐라십경의 위치

2. 제주명승의 시기별 변화

조선후기에 사대부들 사이에서 명승유람이 유행했고 그들에 의해 명승을 팔경, 십경 등의 틀로 집경하는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유람문화와 팔경문화의 풍조가 만연했다는 내용을 이미 확인하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육지부의 문화풍조 유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수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명승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제주에 남아있는 명승의 기록을 작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승지를 유람하는 행위를 즐기거나 혹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에 유람자 곧 기록자의 개인적인

151) 김태호,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제21권 제4호, 한국지형학회, 2014, 152쪽.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 유람기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곧 명승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주에 남겨진 명승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문화풍조가 개인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변화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산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제주 명승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6세기~17세기 사이 문인들은 한라산에 대해 중국의 삼신산 중 영주산에 빗대어 불리며 산신의 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유산기에 남겨진 기록들에서도 온갖 관련 설화들이 명시되어 있었고 특히 16세기에 쓰인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이러한 신선의 산, 한라산의 실체에 대한 호기심이 한라산 등람의 동기가 되었다.¹⁵²⁾ 또한 17세기에 쓰인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산신제라는 공무를 행하기 위해 등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한라산을 영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행위라고 보인다. 조선전기를 전후로 하여 산수가 수기의 대상이 되기 이전까지 명산은 국가가 주관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주로 국가적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였으므로 국가 주도로 신앙적 영역화·상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라산 유산기류에 따르면 17세기에 안무어사 김상헌, 안핵 겸 순무어사 이증, 정의현감 김성구에게 각각 한라산에서 국가주관의 산신제를 지내도록 하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명산을 신앙적으로 영역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신앙의 대상에 한라산이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18세기에 쓰인 이형상의 『남환박물』 「지지」 조에 나타난 한라산에 대한 기록에서는 한라산을 식생별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형상은 한라산의 자연현상과 기후를 자세히 살피고 있으며 기후에 따른 제주인들의 옷차림과 생활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사물이나 경관을 실측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한라산 정상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에 위치한 오름·하천·숲·섬 등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한라산을 명승이지만 동시에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¹⁵³⁾

이처럼 신앙의 대상 혹은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명산이 점차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수기의 장소로 인식되면서 자연에서 유학적 도덕을 수양하며 삶의 이치를 터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연에 내재된 의미를 찾

152) 윤미란, 앞의 논문, 2008, 30~31쪽.

153) 윤미란, 위의 논문, 2008, 43~47쪽.

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갔다. 때문에 사대부들의 유람 목적도 다양해졌는데 단순히 산수를 유람하고자 하기도 했고 문기함양과 구도를 체득하기 위해 산수를 유람하는가 하면 안분과 탈속의 체험을 하기 위해 산수를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제주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의 한라산 유산기들과는 다르게 19세기에 쓰인 이원조의 「유한라산기」에서의 한라산은 산신의 장소가 아닌 공자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였다. 그는 이형상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풍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하였고 등람하는 자세를 도를 배우는 것이라 하여 구도자적 자세로 등람하였으며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자기수양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¹⁵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주의 명승인 한라산에 대한 인식은 16~19세기에 걸쳐 신앙의 대상에서 탐구의 대상, 그리고 자기 수양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17~18세기의 제주를 방문하는 목적은 개인적 유람 목적으로 오기보다는 지방관이거나 공무로 지방에 파견된 경우 등 스스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외적 요인으로 인한 방문이었다. 하지만 부임 후 순력의 임무를 바탕으로 보임지의 순회를 명분으로 삼아 도내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17세기 말 이익태의 「탐라십경」과 『지영록』, 18세기 초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 같은 제주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익태와 이형상의 명승 기록은 순력이라는 임무가 바탕이 되었지만 탐라의 열 가지 절경을 집경한다던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제주에 관한 박물지를 내는 등의 행위는 오롯이 국가를 위한 집경과 집필이었다기 보다는 작자 본인의 유람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인 연구 의지에 영향이 컸다고 보인다.

야계는 유람문화가 유행하던 17세기에 어느 조선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수 유람을 즐겼는데 그는 한라산에 오르기 전 이미 속리산·금강산·지리산을 유람했고 부임지에서 틈틈이 산천과 명승지를 찾아다녔다. 이익태가 제주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육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 알고 있는 곳이 적은 것에 안타까워하며 유명한 절경과 숨겨진 경치를 찾아내 십경을 선택하고 병풍형식의 십경도도 제작한 것은 유람을 즐기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던 야계의 성향 때문이었다. 또

154) 윤미란, 앞의 논문, 2008, 50~52쪽.

한 그 이후 이형상은 「탐라십경」을 참고하여 『탐라순력도』를 제작하였고 더불어 박물지를 남기는 데, 이는 남인계열의 실학자들과 교류가 잦았고 그 영향으로 역사, 지리, 예악, 천문 등의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의 탐구정신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기록자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 유람 기록이 풍부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주를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제주의 지리적 입지 때문에 육지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절경을 집경한 이익태로 인하여 「탐라십경」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에는 한라산이라는 명산 말고도 다른 명승지가 존재함을 도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당시 지방관들이 자신들의 부임지나 거주지를 팔경·십경으로 집경하는 목적과 같이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윤두서의 부탁을 받아 제주의 역사, 고적, 승경, 풍속, 산물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기록한 이형상의 박물지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던 사대부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인다.

내용면에서 보았을 때 이익태가 「탐라십경」에서 집경한 명승은 후에 이익태가 『탐라순력도』에서 배경으로 한 명승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익태가 제작한 『탐라십경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저술한 『지영록』에 남겨진 십경에 관한 기록이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배경이 되는 부분, 『남환박물』과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6〉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명승지

작자	작품명	품제
이익태	「탐라십경」 (『지영록』)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서귀소, 백록담, 영곡, 천지연, 취병담, 산방, 성산
이형상	『탐라순력도』	성산관일, 산방배작, 명담범주, 천연사후, 정방탐승, 현폭사후, 김녕관굴

『탐라순력도』에는 朝天操點, 別防操點, 明月操點, 西歸操點 등 이익태가 「탐라십경」에서 십경으로 집경하였던 조천관, 별방소, 명월소, 서귀소를 나타내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이형상이 『남환박물』에

서 경승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그림을 찾아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경승지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표 6> 을 보면 이형상은 이익태가 십경에 꼽았던 조천관·별방소·명월소·서귀소 등의 군사지와 백록담·영곡 등의 한라산 부분은 따로 두고, 성산, 산방, 취병담, 천지연을 명승으로 그대로 취하였으며 여기에 정방폭포와 천제연폭포, 김녕굴을 추가하여 『탐라순력도』에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사지를 강조하며 명승으로 선택했던 이익태와는 달리 동굴과 조선시대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였던 폭포를 주 경관으로 생각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폭포 세 곳을 포함하는 등 명승을 취합할 때 경관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에 남아있는 명승도를 통해 제주 명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7> 제주 명승도의 시기별 변화

명승도 명승지	『탐라순력도』 (18세기 초) ¹⁵⁵⁾	『제주실경도』 (18세기 말) ¹⁵⁶⁾	『탐라십경도』 (19세기 추정) ¹⁵⁷⁾	『영주십경도』 (20세기 초 추정) ¹⁵⁸⁾
성산				

155) 『탐라순력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56) 서울옥션(<http://www.seoulauction.com/>) 사이트 내 『SEOUL AUCTION HONGKONG SALE』 도록에서 참조하였다.

157) 『탐라십경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58) 『영주십경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명승도 명승지	『탐라순력도』 (18세기 초)	『제주실경도』 (18세기 말)	『탐라십경도』 (19세기 추정)	『영주십경도』 (20세기 초 추정)
산방				

〈표 7〉은 『탐라순력도』, 『제주실경도』, 『탐라십경도』, 『영주십경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제주의 명승인 성산과 산방의 모습을 그린 명승도를 작성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본 것이다. 특징적인 점은 『탐라순력도』와 『제주실경도』, 『탐라십경도』는 성산과 산방을 그림에 있어 구도적인 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마치 지도를 그린 것처럼 지명이 곳곳에 쓰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실경도』와 『탐라십경도』는 각각 다른 시대에 그려졌으나 공통적으로 상단에 17세기에 쓰인 이익태의 「탐라십경」의 글을 인용하며 지리적인 정보나 지역의 특징을 기입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명승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기록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달리 19세기 이한우의 품제와 유사하여 그 것을 기저로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 「영주십경도」는 제주의 명승을 보다 감성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 상단에 소표제와 간단한 한시가 있으나 명승을 그린 그림이 중심이 되었으며 지도의 사실성보다는 산수화의 낭만적 느낌으로, 실제 방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명승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18세기 전후의 명승 기록은 중앙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기록인 동시에 유람이 유행하는 시기에 사대부들이 향유하던 상층 계급의 문화였다. 그에 비해, 19세기 이후의 명승에 대한 기록은 유학자들의 다수의 시와 산수화·민화의 발달로 인한 병풍화의 유행 등으로 양반과 서민문화에 다양하게 침투함으

로써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풍광적이고 낭만적인 요소, 유흥의 요소로 확대되는 경향이 크다. 또한 17~18세기에 주로 지방관들이 순력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승을 바라보았던 시각과는 달리, 19세기에는 오롯이 자의에 의한 개인의 유람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명승이 유흥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19세기 제주의 명승기록은 제주인인 매계 이한우를 중심으로 내·외부의 다양한 유학자들이 제주의 열 가지 절경을 선택하여 영주십경이라는 주제로 한 시를 창작하고 있다. 이전의 제주에 대한 이미지라면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친숙하지 않은 신선의 땅 혹은 유배지의 어두운 일면 등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의 혹은 타의로 제주에 오고 간 외지인들의 유람 기록이 제주를 유람하고 싶은 명승지로 인식하게 하였고, 기본적으로 제주에 대해 애정을 가졌던 제주인 매계의 영주십경에 대한 작시와 타 문인들과의 시문화답으로 제주의 명승이 알려지면서 관련한 시문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품제 면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경관미·계절미를 중요시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V. 결론

조선후기는 명승을 유람하려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한 시기였다. 산수가 신앙의 대상이었던 조선시대 이전과는 달리 수기의 장소, 유희의 장소로 인식되면서 산수를 유람하고자 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유람의 목적도 다양해진 것이다. 순수하게 산수 자체를 감상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유람을 통해 탈속과 안분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대부들이 문기함양을 하고자 유람하기도 하였으며, 명승의 답사를 통해 선대 명현의 행적을 찾고자 유람을 떠나기도 하였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중앙에서 파직당하여 유배되는 등의 외적 요인으로 거주지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유람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명승유람이 성행한 배경과 팔경문화의 유입·확산, 그리고 이러한 문화사조가 제주의 명승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고 다른 지역의 명승기록과 제주 명승기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제주명승 인식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명승 유람은 명나라의 산수유기가 조선으로 유입되어 대중적인 독서물로 자리 잡았고, 명·청의 서양화법이 전해져 회화양식이 발달하게 되는 등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도로망을 정비하여 발달한 교통망은 유람이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도 유람이 성행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더불어 상업자본의 발달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유람을 떠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폭넓게 증대하여 유람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와유로라도 유람을 즐기고자 하는 문인들에 의해 각종 유람기의 창작이 유행함과 동시에 여행을 할 때 본인이 직접 혹은 화공을 데리고 다니며 남기고픈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행위도 성행하게 되어 산수 유람의 기록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유람의 유행과 더불어 17세기 후반에는 특정 지역의 명승을 유형화한 ‘팔경도’나 ‘십경도’가 확산되었다. 이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 자각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제주의 경우 목사나 유배된 유학자들에 의해 경관에 이름을 붙이고 팔경이나 십경 등으로 유형화하여 시문이나 회화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제주는 남겨진 명승기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라 중앙에서의 유람의 유행이 제주에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제주의 명승을 기록한 유람자들은 대부분이 외지인들이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에 의해, 당시의 문화풍조가 제주의 명승기록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한라산 유산기를 비롯한 「탐라십경」, 『탐라순력도』, 「영주십경시」 등의 사료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특히 「탐라십경」의 작성자인 이익태는 유람이 유행했던 17세기의 조선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수 유람을 즐겼으며, 서인이면서 산수기행문학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었던 김수항, 김창흡 등과의 교유의 영향으로 목사 부임 시 탐라의 십경을 집경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탐라순력도』의 제작자인 이형상의 경우 남인계열의 실학자들과 교류가 잦았고 그 영향으로 역사·지리·예악·천문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제주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길 수 있었다고 본다. 더불어 「영주십경시」를 작성한 이한우의 경우에도 외지인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있었던 추사 김정희와의 수업에서 제주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라산의 영험한 이미지로 제주는 외지인 혹은 내지인들에게 신선의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유람하기 쉬운 근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지방관으로 공무를 수행하거나 유배를 당하여 내려오게 되는 길에 임무를 겸하여 지역에 알려진 명승을 유람하고 기록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제주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익태와 같이 본래 유람을 즐겼거나 이형상과 같이 학문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팔경화·십경화 하여 이를 알리려는 노력을 행하였다. 이러한 지방관들의 집경 행위는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타 지방 문인들이 제주를 미개한 지역이라 보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제주는 유람하고 싶은 곳이라는 관심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의 명산인 한라산에 대한 인식은 신앙의 대상에서 탐구의 대상, 자기수양의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순력의 기록 또한 명승에 군사적 요충지를 포함하던 품제 선택의 기준에서 점차 경관미를 중요시 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탐라십경」, 『탐라순력도』, 그리고 후에 제작된 「영주십경시」의 품제 변화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명승을 기록할 때, 지형·지물의 역사·경물·지리정보 등 실용적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하던 것에서 점차 경관을 즐기며 작성한 한시나 명승을 대하며 느끼게 된 감흥을 명승의 기록에 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전후의 명승 기록은 중앙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기록인 동시에 유람이 유행하는 시기에 사대부들이 향유하던 상층 계급의 문화였음에 비해, 19세기 이후의 명승에 대한 기록은 유학자들의 다수의 시·서·화로 표현되는 풍광적·낭만적인 요소, 유흥의 요소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17~18세기에 주로 지방관들이 공무의 목적을 가지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순력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명승을 사실적으로 바라보았던 시각과는 달리, 19세기 이후에는 점차 자의에 의해 개인의 유람과 개인의 감흥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며 명승을 곧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 명승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했으나 자료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여 제주명승이 시대별로 정확히 구분되는 특징적인 면이나 변화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중앙에서 유행하였던 유람문화 풍조와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만큼의 사료가 불충분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했던 사료들 말고도 제주명승과 관련한 그림들과 개인 문집·읍지·각자 등에서 더 많은 사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권상하, 『寒水齋集』

기대승, 『高峯集續集』

김창협, 『農巖集』

박광일, 『宋子大全』

박팽년, 『朴先生遺稿』

양대박, 『靑溪集』

이식, 『澤堂集』

이유원, 『林下筆記』

이익, 『星湖全集』

이행, 『容齋集』

장유, 『谿谷集』

최립, 『簡易集』

홍대용, 『湛軒書』

2. 연구논저

1) 단행본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2007.

박정애,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오문복, 『영주십경시집』, 제주문화, 2004.

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이형상 저, 오창명·이상규 역,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2009.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최완수 외, 『진경시대 : 우리 문화의 황금기. 1,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8.

탐라순력도연구회,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2) 연구논문 및 기타

강정화,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제26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_____, 「지리산 유산시에 나타난 명승의 문학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제41권, 동방한문학회, 2009.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 제11권, 영주어문학회, 2006.

김치완, 「영주십경으로 본 매계 이한우의 선경 인식과 그 태도」, 『대동철학』 제59권, 대동철학회, 2012.

김태호, 「탐라십경도에 표현된 제주도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제21권 제4호, 한국지형학회, 2014.

노재현 외, 「영주십경의 형식구조와 의미내용을 통해 본 제주의 경승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_____,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박정애, 「조선후기 관서명승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58호, 한국미술사학회, 2008.

백종진, 「영주십경, 그 뿌리를 찾아서」, 『수필시대』 제10권, 문예운동사, 2015.

손기범,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영주어문』 제17권, 영주어문학회, 2009.

윤민용, 「18세기 《탐라순력도》의 제작경위와 화풍」, 『한국고지도연구』 제3집,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이보라, 「제주목사 야계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와 후대에 미친 영향」, 『야계 이익태

- 목사 학술세미나』, 화신문화역사연구소, 2013.
- _____, 「17세기 말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의 성립과 《탐라순력도첩(耽羅巡歷圖帖)》에 미친 영향」, 『온지논총』 제17권, 온지학회, 2007.
-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의 유행에 따른 문화축진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8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 _____,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 제31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_____,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양상」,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1.
- 이종목,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호, 진단학회, 2004.
- _____,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문학회, 1997.
- 최원석, 「동아시아의 명산과 명산문화 ; 한국의 명산문화와 조선시대 유학 지식인의 전개」, 『남명학연구』 제26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3) 학위논문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문학과 기유도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창훈, 『조선시대 유람록에 나타난 지리산 경관자원의 명승적 가치』,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고길선, 「조선후기 〈耽羅十景圖〉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고윤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대호, 「명승자원으로서 별서정원의 가치」,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새미오,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나혜영, 「조선후기 한양명승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백종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손명란, 「조선시대 산수화에 내재된 와유사상의 시기별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신동섭, 「조선 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 장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10.
- 이보라, 「조선시대 관동팔경도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